



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7년 11월 3일(월) 제700호 창간 1969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 정 주간 변재일 편집장 김재형 인쇄인 홍문주 외대신문사 001-4151, 002-7120(가)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001-4152, 4400 FAX 001-4153 (통인) 0335-30-4112 서울시 용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오현면 통산리 산 88

칠백의 고개를 넘습니다.
광고투쟁, 사설투쟁, 학점조항 투쟁 ...
힘겨울만도 하건만
갈수록 다리엔 근육이 붙고 힘이 넘칩니다.

오늘도 펜을 움켜쥐고 달립니다.
외부의 적의 무서움보다
내부의 적의 무서움을 알기에
오늘도 자신과의 치열한 투쟁을 향해 달립니다.

민족자주언론을 위해 ...





세민제, 명성 무색

지난 10월 29일(수), 30일(목) 양일간 서울배틀러 노천극장에서 제2회 세제민 술제(세민제)가 열렸다. 이번 세민제는 "HUSan이여 세계평화를 노래하라"를 기
진행되었지만, 주최측인 흥화생회와 과화생회의 준비부족에 추운 날씨까지 겹쳐
인들의 호응을 그치지 못했다.

지 면 안 내

사외보도 4면

고 김준배열사 장례식이 지난 10월 19일 광주에서 열렸다.

사망후 1달만에 열린 장례식. 죽은 것도 서러운 데 장례식마저 제때 못 치르고...

2회 인권영화제 첫 지방개최인 '인권인권영화제' 조기종결 8면

반박하는 동북아정세 2-이중관계9면

동아시아에 최대 패전국 미국에게 도전장을 낸 중국.
 이제 동아시아는 미.중의 패권쟁탈전으로 변해가는데...
 조선 후기 열강침략의 역사를 다시 보는 듯...

용인 학부제 설문조사 결과 분석 10면

외대학보 이렇게 만든다!..... 12면

월요일 아침마다 독자들 만나는 외대학보!
그 고난의 제작과정으로 안내한다.
외대학보에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으로 예상...

각 급 학생회 선거 임박

용인총학 단독후보로 오는 12일 선거, 서울 25일

윤인배(두) 총학생회와 단대학생회는 각급 단위 학회조직 확보 및등록 및 유세기간과 투표일을 결정·발표한다.

19대 총학생회장 정·부 후보 유세기간은 지난 28일(화)부터 오는 11일(화)까지이며, 총학생회장 정·부 후보들은 고희철(전·문·언) 4·임정민(생·물·약) 4조만 이 등록하여 오는 12일(수), 13일(목) 양일간 열릴 선거는 이들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양대학학생회장 선거는 다음세월 11일(화)까지 선출될 12월, 13일이다.

동양대학학생회장 선거는 다음세월 4월 11일(화)까지 다음세월 18일(화)까지 선출될 예정이다.

선거일 19일(수), 20일(목)이다.
동원대학교학생회장 선거는 △등록기간 1월 1일부터 19일까지 17일(월)까지 △선거일 18일, 19일이다.
경상대학교학생회장 선거는 △등록기간 7월 1일부터 △선거일 17일까지 17일(수)까지 △선거일 18일, 19일이다.
자연대학교학생회장 선거는 길영철(물리 4) 군인이 등록하였으며 △선거기간 17일까지 △선거일 18일, 19일이다.
그러나 인문대와 공대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못했다.

서울메디칼대의 학생회장선거는 과명사기까지 다 끝나지 않아 학생회 전반 일정이

이 늦어짐에 따라 조금 늦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로 배움에는 총학생회의 경우, △후보등록 5일부터 12일(수)에서 14일(금)까지 선거일 25일(화)과 26일 수요일일정만 잡아먹고 있는 상태이며 이번주 내로 선거지침서와 관련, 학내운동가 열명 선정 가능하다. 동아대에 학생회장 선거는 △후보등록 5일부터 12일(수)까지 선거일 19일(금)에서, 사회과학대는 △후보등록 9일~7일(금) 선거일 19 회대(목), 또 동아리연합회는 △후보등록 13 14일(금) 선거일 20일(목)로 잡고 있다.

허윤숙 기자

서울 소극장에서 또 결혼식

교수식당업자 직접개입...파장커져

지난 달 12일(일) 교수식당임대업자 조카의 결혼식에서 한 차례 공방을 벌였던 서서울병으로 소극장 문제를 지난 25일(월) 또다시 결혼식이 치러져 학생들의 과의 재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시인의 발언은 지난 9월 초 동문 의 동생이 결혼식장 사용 요청을 교수식당임대업자(박사장이라고 불림)에게 하자 박사장이 이를 추진, 결혼식 일주일 전에 침투처참과 합의를 거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학생측은 "소극장 재공자 전가지는 결혼식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약속이 깨졌다"며 "더군다나 소극장과 관련

도 없는 박사장이 마음대로 개입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학회측의 이같은 반발에도 덜렁 박사장은 아직 조사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28일(화) 중앙임원회의(위원장 단과대 학회회장)들은 총무처장과 면담을 갖고, 박사장의 행동에 대한 제재가 없었음을 추궁하였으나, 한심경 총무처장은 책임소재를 부인했다.

소극장에서는 동·서임대대 학회회가 주관하는 세계경제학자 지난 27일(목)부터 열린 바 있으나 이만과도 정(정)의

모교방문의 날 행사(지난 1일)는 과평성이라는 이유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관련, 흥학회는 학생식당업무선정과정에서 입찰업체중 하나인 박성진 협가배제 등의 주장에 대한 공식 답변이 요구하였으나 대학당국은 답변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흥학회는 △결혼식장 사용권한은 교직원회 의결제나 월 등문헌인으로 한정 △11월내 학생요구단체인 소극장장사 완료 △학생 식당업무 설립회에 학생참여 △후생과 축소 등의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 등이 주요 목적인다.

김민석 기자

양 배움터에 대한 공안탄압 가시화

용인 침탈, 서울 총학생회장 연행 등

지난 17일(금) 밤 용인배출터 서양대학생회장 김창섭(이대리 4군)이 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연설했다.

김은 지난 5기 한총련 출범식 이후 공안당국의 대외원래에 대한 탈퇴강요에도 불구하고 탈퇴를 하지 않고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 '한총련재건과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의 일을 하였으며, 한동안 격악한 회의정황이 예상되었지만, 이제 밝

으로 파한 상황이었다. 이날 그는 학생회
정리 사업을 준비하며 건부와의 만남을
갖는 도중 미형당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
졌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는 지난
10월 1일(수)부터 현승군 백민원에 1개
급 특진의 지명 수배를 받아 왔으며 경
청의 가족에 대한 협박과 강요로 여러
몸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진구여회 이외에도 지난 24일(금)에는

사복검거 20여명이 동원배우터 어문관
 년입하는 일이 있었다.

이날은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마치고
 활을 떠난 관개로 학생들이 거의 남아
 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복검찰들은 이
 어문관을 확보하며 한층원을 탈퇴하
 않은 대의인을 잡기위해 침탈한 것
 밝혀졌다.

서윤경 기자

사설

해체든 혁신이든, 학생의 몫이다

오늘(3일)은 학의 날이다.

일본학생회 조선 여학생을 괴롭히는 과정에서 조선학생과 일본학생 간의
충돌이 벌어졌고, 이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조선학생들 법적으로 처벌 받음
때문에 광주에서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학교교고를 거하게 하고 거리로 시
위를 벌이면서 학생들을 일컫는 말을 기발하게 만들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 학생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심지어는 당시의 상황
에 비추면 꽤 조금은 무모하기까지한 그들의 행동은 무모하기보다 무모
한데 맞서는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된다. 패기와 용기였다.

부담없이 생각해 보면 학생들의 행동의 용기는 일찍이 학생들을 찾아온
모든 계급과 계층이고, 당시 학생들의 일련의 과정은 폭민족의 억압과 억압자
대한 반발로 들고 일어난 것이다. 오늘날 학생들을 논외로 한 채의 우리
한 집권정권에 대해 언론의 반성과 학생과 학원 외의 거리로 발걸음을
출발한다. 그러나 거리의 내면의 모습의 발걸음은 '학생'과 '폭력'이
같이 그려져 제아니오 싶지 못하다. 이단장 박선 1997년 학의 날을 맞을
것이기에

한 정권은 자신의 한계를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에게서는 나와 다른 이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자하는,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아량을 찾을 수가 없다. 현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무차별적 탄압의 한 폭력에서 있다. 악취를 가리지 않고 뿌리는 이들을 위해 폭력을 행사한다. 그 폭력에 학생들의 순순함이 무너지기 지났고 있다.

사람들의 순한 열정과 깨달음을 얻고 싶어 하는 주의, 주장을 무리짓고도 채워지지 않는 정경의 대안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순수하다는 것은 치명적이고 위험한 함과 허위의 부속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 열정으로 시작하면 열정이 반드시 오류가 따르는 법이다. 이런 이유로 '순수'해야 할 '열정'은 도 말에게서는 과정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 부산문화 '열정'은 가처지지 자유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타도하지야 차별해야할 대상으로 비리비서는 안 된다. 오류를 범할지라도 꾸준히 차별만 하면 그 대안 바깥과 지대한 불타임으로 끝까지 비참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것을 외할 수 있다 때문에.

그러나 현 정권은 폭력으로 가르치는 법만 알았지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가르치는 법을 모른다. 한총련의 혁신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하고 했던 연인원대회의때는 물론이고, 박정호를 옥살이를 하게 하여 미련하게 했던 장교 각개격살이 미련한 토론과 역시 공권력을 옥살이 무산시켰다. 한총련을 재건하려면 움직이지는 않아서이다. 그러나 그들은 한총련, 박정호등조직의 힘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단체와 조직은 그 나름대로의 '정'과 '의'를 가지고 있다. 한총련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무작정 주어진 법의 잣대로 그에게 죄를 씌워 형사를 할까 싶어 하였다. 그들은 스스로 자결하는 법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게 바로 세상을 조곤 이라고도 하는 인간의 기성체라고 믿고 고 넉하였다. 물론 경제, 경제, 문화, 교육, 통일 전반에 걸친 것들의 실패로 인해 자결할 수밖에 빠져 있는 한 정권이라고. 그 그런 넉넉함이 원인 기해한다는 건 자결가 자유분방 지친 욕심인 지도 모른다. 아니 정권의 실패 한하나를 짚어내는 '눈에 가시' 있을 학생 들을 '이데아' 싹 잡아먹고 있는 그들의 속셈을 우리가 너무 간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두만 97년 학생의 날을 맞아 우리는 견해를 내어야 한다.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한총련을 탈퇴했든, 한총련과 다른 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든, 학살에 관여한 것이 있든 없든, 학생들을 사형할 필요호를 가지지 않음에 불분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총련의 이후 방면에 대해 정죄하되, 검찰청, 교수노조반발의 일선으로 바르 학생들의 손으로 결정하자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선학교의 사회적 위기가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한국이란 나라에서 학생운동의 역할이 없어져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지 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토론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운동을 미래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총련을 해체하든 혁신하든, 시수한 그간 학생들의 똘이다. 공권력에 그 대응을 맡겼다. 가장 중요한 이 명제를 모르고 있는 정권은 그로 인해 대외적 오류를 겪고 있는 것이다. 전국대학생노동자대협이 전국대학학생대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이서 정권의 한총련 탈퇴입학에 대해 88.3%가 '학생 스스로 결정보다 한다'고 답변했고, 공권력의 학생자위권 강압에 대해서도 87.6%가 '학생의 적극적인 자치활동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철저 행위'라고 답했다. 현 정권은 아직도 학생들의 대들 몰라다 너무 무모하다.

1998학년도 전기 각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 모집

대학원 (일반전형)

- 나. 모음규정 및 복귀·인원**
- 가. 복식취임위원회 : 각 학과 학장님
- 이론대학 : 영어, 불어, 중국어, 독일어, 노어, 서반아어, 일본어, 아랍어 - 아프리카어, 인문학, 국어(국문학과)
 - 언어교육대학 : 철학, 과학
 - 사회과학대학 : 정치외교학, 행정학, 법학, 신문방송학,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경영정보학
 - 자연과학대학 : 수학, 물리학, 화학, 농생명, 환경과학(건설), 마생물과학(건설)
 - 공학대학 : 컴퓨터공학, 전자, 제어공학
- 나. 박사취임위원회 : 각 학과 학장님
- 이론대학 : 영어, 불어, 중국어, 독일어, 노어, 서반아어, 일본어, 아랍어 - 아프리카어, 인문학, 국어(국문학과)
 - 언어교육대학 : 철학
 - 지역대학 : 국제관계연구회
 - 사회과학대학 : 정치외교학, 행정학, 법학, 신문방송학,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경영정보학
 - 자연과학대학 : 수학, 물리학, 화학
 - 공학대학 : 컴퓨터공학
- 박사취임위원직 지인연락제 및 공개계약제 발의(학예처지침 대학원안-다.
-
2. 원서교부 : '97년 11월 30일(수)부터 11월 13일(목요일)
 3. 원서접수 : '97년 11월 12일(수)부터 11월 13일(목요일)
 4. 전형일시 : '97년 11월 22일(토) 오전 10시
5. 전형방법
- 가. 심사과정 : ① 전종 2명에서 영어(불어는 불, 중, 독, 노, 서, 일어 등 총 6개) ② 구술시험
- 나. 박사시험 : ① 전종 2명에서 ② 재도려(국어(이론계열)과철학, 철학과, 법학과에 한함) ③ 구술시험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 고시(공고)로 문의하면 (TEL : 061-4104, 062-7117).

경영정보대학원 (주간)

1. **모교단체 (학 및 단원):** 각 학과 전공별 ○형
가. 경영학부식자재계: 경영전공학부 - MS, 석사제, 제4차, 제5차, 생산인공관, 조직전략 전공
나. 이학 석사 과정: 응용전공학부 - 소프트웨어공학 전공
2. **지원자격:**
가. 국내 대학졸업 및 1990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위와 동등한 자리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인정되는 자
※이른바 통학권 인정학도로서 응시할 수 있음
3. **권한방법:** 가. 원서접수기간: 나. 교수시험
4. **원서접수 및 접수:** 1997년 11월 30일(월) ~ 11월 14일(월)
시험장소: 11월 15일(월) 오전 9시
- ※가) 지원자격에 대한 문의사항은 학교총무 부속인사팀 (TEL: 966-7060 961-4119)

세계경영대학원 (야간)

- [illegible]

교육대학원 (야간)

- [illegible]

정책과학대학원 (야)

3. **모집대상 및 인원**
가. **석사학위과정**: ○○명
· 공공정책학과 · 공공정책전문, 공공행정전문
· 공공인사총학과 · 인사문화, 인사관리
· 외교문화학과 · 외교문화정책전문, 문화학전문
· 광고홍보학과 · 광고전공, 홍보전공
· 환경정책학과(신설) · 환경정책전문, 환경디자인전문
나. **연구과정**: 각 학과 2명씩
4. **전형을별**: 석·박사제 병행
5. **원서교부 및 접수**: 1997년 11월 25일까지(11월 25일)까지
6. **전원일정**: 1997년 11월 25일(화) 오후 2시
7. **제출서류**: 입학원서(신청서), 입학원서 4매, 졸업 · 성적증명서, 자격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8. **학원**
· 전공과목은 필수과목에 주재
· 학과교무위원 1명, 전공교무위원 2명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에 문의하십시오. (TEL: 961-4093, 362-3590)

“준배는 물었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공안탄압분쇄 투쟁 계속 벌일터



지난달 15일 김준배 열사 장례식이 광주에서 열렸다. 김준배 열사는 지난 9월 15일 아파트에서 추락했다. 사진은 김준배 열사 조문군중이다.

사망한 한달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김준배 열사 장례식이 지난 10월 19일(일) 광주에서 진행됐다. 이날 장례식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학학생 김준배 열사 민주인권장 장례위원회(장례위협)' 소속 시민들과 학생들 모두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한총련 투쟁국장이었던 김준배 열사는 지난 9월 15일(월) 은신처인 광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추락했다. 이날 사고는 사복형사 2명이 11시 30분경 안전대행 하나 없이 김준배 열사가 은신하고 있던 광주시내 한 아파트를 급습, 검거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김준배 열사 사망 직후 한총련과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즉각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김준배 열사 사망 진상규명 △안전장지도 없는 상황에서 과잉검거에 대한 책임자 처벌 △한총련에 대한 공안탄압 분쇄 등을 요구하며 한달이 넘게 투쟁을 벌여왔다.

이날 장례식은 발인식, 영결식, 도장제, 하관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장례식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전남대 병원 영안실에서 1500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오병환(광주전남 종합병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11시경 장례행렬은 영결식을 치르기 위해 열사의 묘지로 광주대학교로 떠나 12시 30분경에 도착했으나 운구차가 광주대에 들어오는 것을 광주대 류준태 학생회장 등 학교직원들이 저지하는 관제로 영결식은 1시간 정도 후에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운구차 저지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한총련 외장 관현대행 유영민(목포대 총학생회장)은 “총정의 사과가 없는 광주대를 비난할 수 없다”며 사건의 비정상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이같은 부조정은 “자식같은 제자의 일, 가슴아프다”며 “학교보호 차원의 일이었으나 오건의 일에 대해서는 총정의를 탄압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 김병삼(41세)은 “묘소에 운구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그만큼 학생들의 활동이 탄

압받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후 장례위원회는 도청앞에서 노제를 치르려고 했으나 전투경찰이 금남로 큰 길에 콘테이너 박스로 바리케이트를 설치, 도청노제를 치르지 못하고 오후 7시에 금남로에서 노제를 지냈다. 이날 노제는 사전 허가된 것이었으나 당일 도청노제는 끝내 허락되지 않았다. 도청노제에서 김준배 열사 아버지 김현국씨는 “주석날 새벽에 전화가 올랐을 때 ‘우리 준배가 추락하니 몰래 전화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준배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슬픔과 억울함을 토로했고 또한 “준배를 묻는다고 끝난게 아니다. 앞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더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노제를 끝내고 난후 유가족들은 망향동으로 이동, 김준배 열사를 묻었으며, 대부분의 장례객들은 조선대로 이동해 장리검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외장 관현대행 유영민은 “최파이프와 화염병이 폭력이라는 사용처 없는데 아니라 어떤 식으로 무장하든지 정권의 폭력은 그대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며 “앞으로 있을 11월 노동자, 철거민, 농민들의 투쟁에서 민중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 10일(월) 전남대학교에서는 ‘김준배 열사 추모 문화제’가 열린다. 전남대기문공동지자단



9월 30일 해당 1-2 재개발구역의 철거과정에서 주민들이 집단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철거민 협동 재개발구역의 모습이 가운데 보이는 천덕에 철거민들이 살고 있다.

행당동, 철거 과정 성폭행 발생

박순덕 열사 사망관련 철거광과 소행

지난 9월 30일 해당 1-2 재개발 구역의 강제철거 과정에서 적준용역 소속 철거광에 의해 주민 30여명이 폭행을 당했고, 여자들 집단 성폭행 당한 것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철거현장에 성폭행장소 소속 박재동, 최용환 형사 등 최소한 6명의 형사가 있었다는 사실과 철거광들이 “전농동에서도 한명 죽었는데 아무일 없었다. 여기서 한두명 죽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과 성동구민이 집단탄압과 성폭행 폭언·방조한 것으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아침 새벽자 40여명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조각과, 가이주 단지 설치, 학원점포신공업체인 적준용역에 의해 자행되는 철거폭력범죄와 적준용역 해체 등과 관련 성동구청으로 항의와 문서를 지냈다. 행당동에는 10여명의 노약자의 어린이들이 있었고 이때 적준용역 소속 행당대원 100여명과 철거용역원 500여명, 경찰병력 300여명이 철거를 강행했다.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의 앞에 따르면 철거광들이 주민들에게 성적인 욕설을 해대는가 하면 여자 1명에 경계 4-5명씩이 달려들어 옷을 벗기고 가슴을 움켜쥐고 흔드는 등의 성폭행을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한 주민은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해 심신지탱에 거의 차했다고 한다. 또한

철거소식을 듣고 항의방문에서 급히 돌아온 주민들 30여명이 집단폭행 당해 주민 김동현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무릎 인대가 끊어졌으며, 여자 주민 3명은 배를 잔여자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재개발대책위원회 강기주 총무는 “지역내 주민이 없는 시간을 노려 사건에 성동구청과 경찰서, 재개발 조합, 적준 용역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폭력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이모 주민은 “큰 거울에 반 한 방한 없이 이렇게 보내달라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2000년에 잡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한국은 뒤로 가고 있다”고 말해 비탄의 감정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1일(토) 이 지역에 취재했던 본보 사진기자가 용역광들에게 의해 폭행당한 한 일도 발생했다. 이날 철거광들은 사진기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하고 필름을 내놓으라며 심의를 들고 협박하며 필름을 빼앗아 파손시켜 버렸다.

이날 모두 27세의 집이 철거당했으며, 현재 철거주민들은 정농을 기동산이 정농과 정농사이에 장판과 비닐을 둘러 바람을 막고 그안에 살고 있다.

하윤숙 기자

만 나보기 - 민주노총 정성희 국장

“노동자대회, 총파업 결의와 보수정당 국민심판운동의 자리될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0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성의있는 노력과 조치를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이 요구를 무시할 경우 총파업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부터 민주노총 지도부는 명동신당에서 농성을 시작하였고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요구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11월 9일 열리는 노동자대회를 통해 결의를 모아 총파업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보는 민주노총 정성희의 대외협력국장을 만나 한 기사사태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과 총파업, 노동자대회 등에 대해 몇가지 물어보았다.

자율채널을 전면 폐지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사에 대한 정부의 법집행과 방침이 확정되었고, 노조측도 받아들여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노총과 기사노조의 입장은 여전히 3자인 수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사를 3자 인수 하지 않겠다는 공식 약속을 하고 기사를

국민기여해야 한다. 즉 국민주 모임을 통해 국민다수의 기부에 대한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소유를 국민에게 돌려주며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약속을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주거개혁, 한일합성,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의 연세부도 위기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매우 나쁜 시점에서, 따라서 총파업이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여론이 있는데.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기사 관련 1만7천개 협력업체가 연세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고 대기업도 연세부도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그 전에 경제위기의 원인을 먼저 생각해보자.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와 김영삼 정권의 형평성 없는 경제정책이 경제위기를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려 하고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최대한 경제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탄력적인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를 경취해야 한다.

울초 총파업 당시와 비교해 현재 민주노총의 조직적 역량이 훨씬진다는 말이 있다. 또 민주노총의 중앙지도부 일부가 ‘국민승리 21’에 저출생 상황으로 인해 조직적 공백이 보이는데.

한달간 총파업을 진행했던 울초와 비교해보면 현실적으로 주어진 여건이 바뀐 것 사실이다. 따라서 그때처럼 전면적인 총파업은 힘들겠지만 자정자정투쟁을 핵심으로 해서 각 단위노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총파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중식집회나 시가행진투쟁을 통한 규탄대회, 총파업 등 다양한 방법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조직적 공백은 존재하지만 국민승리 21과의 상호보완적인 활동으로, 또 각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데다가 총파업까지 준비중인데, 이번 노동자대회가 가지는 의미가 특별할 것 같다.

노동자대회 전까지 전국 각 단위노조가 총파업



정성희

부산대, 경북대 2번 침탈 등 학원침탈 극심

계속되는 정권의 공안탄압과 함께 학교 침탈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월말에만 경북대와 부산대가 각각 2번의 침탈을 당했고, 외대 용인캠퍼스에도 침탈 당했다.

경북대는 지난 10월 27일(월), 28일(화) 연이층중간 침탈 당했다. 먼저 27일 새벽 2시경 보안수사대 소속 형사들이 단과대 학생회실을 침탈, 학생회실에 있던 13명의 학생들을 연행해갔다. 이날 형사들은 학생회실이 있는 건물로 현관문을 쇄파하고 집단 카를 사용했고 들어와 학생들을 연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튿날인 28일(화) 새벽에 또 형사들이 기숙사를 침탈, 천기현(23, 전자공학 4) 경북대 총학생회장을 강제연행해 갔다. 이에 대해 경북대는 “대선과 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학교 침탈 등 계속해서 학생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완충 강하, 학인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대도 10월말 2번의 침탈을 당했다. 18일(토) 침탈에 대해 경찰측은 “단체 학생회장이 있는 것을 알고 들어갔다”며 “합법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산대측은 “그날 단체 학생회장은 학교에 없었다”고 밝히고 또한 “수배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학교를 침탈해도 된다”는 그들의 논리와 영장제시도 없이 들어와 학생들을 연행하려는 그들이 합법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또 29일(수)에도 저녁 6시경 보안수사대 소속 형사 60여명이 학교를 침탈했다.



독일에서의 무한질주, 1년

Heidelberg, Michelstadt, Köln, Stuttgart...

라인강변을 따라 산꼭대기의 고성들을 뒤로 하고

달리고 또 달렸다.

30,000Km에 이르는 아우토반 위에 서면, 무한 자유를 느꼈다.

1년간의 무한질주, 그리고 지역전문가로서의 무한자유 1년!

그 자유 속에서 처음 느낀 나만의 무한한 잠재력을 키웠고,

돌아오는 길엔 물라 보게 지낸 내 삶을 만날 수 있었다.

장병관(삼성자동차, 독일지역전문가)

삼성엔 인생을 키우는 일을 잠재력을 키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역전문가, Saso MBA, Techno MBA 등 다양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당신을 인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SAMSUNG 삼성

대선이 있는 동안'이라는 주제로 3회 동안 연재했던 대선기획의 정치계 입합산, 대선을 앞둔 언론의 편파 보도, 대선전 공판국에 이어 마지막 보도, 민주주의정당 무임을 준비하라는 등이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정권교체'와 '민본주의'의 정치체제라는 두가지 대의 중 어느곳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의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반지자

국민승리 21 권영길 후보 간담회

진보정당 건설의 디딤돌, 국민승리21

정권교체, 가능성만으로는 안된다



지난달 30일 국민승리 21 권영길 후보 간담회가 성공리에 유원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노동당 진영의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건설의 가치를 둔 국민승리 21과 대통령후보로 나선 민주노동당 권영길위원장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듯 전국에서 모인 지역별과 대의원들이 유원관을 가득 채웠다.

권영길은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대학방송국연합, 전국대학언론기자연합, 전국신문대학신문기자연합, 서울교직원위원회연합,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의의 각 대표가 참석해 권

영길후보에게 질문공세를 벌였다.

주로 대학생들의 관심과 현안에 관계있는 질문들이 많았는데 취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교육제도의 개혁방안, 이번 15대 선거의 의미,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한 국민승리 21의 고안, 새국진보정당모임에 대한 평가, 공약으로 내세운 '사회복지대혁명'의 실현가능성, 권후보의 통일방안 등이 있었다.

취임안에 대해 권후보는 "국민승리 21과 재·발단이 정리되고를 파악해 시작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취업난' 같은 경제불황에도 요인이 있지만 상당한 인위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복지예산은 2002년까지 전체의 20% 선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자 권후보는 단호하게 공약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하경제 사세시장을 발굴해서 사세하고 국부비 축소,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것만으로 최소한 20%가 생기고 이 재원으로 사회복지예산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 통해 국민승리 21은 국가적 공동목표로서, 4대 사회보험의 통합인원화, 교육·의료·주거·노동분야에서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 대혁명'을 내건 국민승리 21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즉 서구의 진보정당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질문에 권후보는 "프랑스의 사회당, 이탈리아의 공산당, 독일의 사회당 등의 '정권'은 궁극적으로 보고 있다"며 서구의 진보정당이 점점 우경화, 개량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나마만 진보정당이라 하더라도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신자유주의적 바람에 맞서 세계최초로 총파업을 단행한 우리 민주노동당의 투쟁의 힘으로 우경화의 병폐는 깨어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로 진출해서 서구의 초국적 기업들이 지배해왔던 것과 같은 노동탄압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비판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승리 21은 대선까지 전국에서 2백~3백개 지역지부 건설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이 과정에서 전국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진보정당으로 만드는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김요주 기자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대선투쟁 역사

민민운의 단결없이는 이득도 없다

대통령선거는 한국사회에 있어 권력재편의 유일무이한 기회로서 무한한 내외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민족민주운동진영(민민운)에게는 정에서 외적인 정치적 구호를 합법적으로 열린 공간에서 실현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이다. 우리에게는 87년 이후 3번째 대선을 맞이하고 있다. 3번 모두 민민운 진영은 변형된 정세에서 각각 다르게 대응하여 왔다.

87년 대선 당시 민족민주운동진영은 대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도(유신 이후 대통령 선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이 민중의 정치적 경험과 정치세력화에 도움이 되는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이 때의 양상은 '비판적 지지론', '후보단일화론', '독자후보론' 3가지로 나뉘었다. 비판적 지지론은 무엇보다도 당시 운동세력의 취약한 역량에서 민주주의의 시대적 과제와 운동세력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처지의 선택을 한 것이었다. 즉 출마가 예정되는 여러 후보 중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 판단되는 김대중 민주당 대표를 지지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 '진보'에 집착하여 양당의 분열을 기정 사실로 인정해 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또한 비판적 지지는 처음 운동세력이 김대중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목표와 상이한 결과를 낳아 버렸다.

'후보단일화론'은 양당의 분열을 막고 후보단일화를 이루어 내자는 것이다. 심로 당시의 조건상 후보단일화는 담임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었지만, 이를 실현할 방법이 없었다. 오히려 비판적 지지론에 대립하여 사실상 김 영삼 씨에 대한 지지도가 기울어져 버리고 마는 중대한 실수를 하였다.

'독자후보론'은 운동진영의 독자후보를 내세워 운동진영의 독자성과 차별성을 선전해 내면서 정치 선동과 조직강화를 꾀하는 노선이었다. 당시 '독자후보론'은 양당 분열에 심대한 일부 대중과 운동진영내 활동가들 간에 상당한 정도의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적 요구였던 민간정부 수립, 그리고 양당의 후보단일화에 대해 효과적인 방책을 갖지 못한

채 후보 사퇴를 함으로써 하나의 '일과성 선택'에 머물렀다.

결국 운동진영의 힘이 미약하여서 조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고 나아가 분열까지 되어 기존 정치권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대중적 불신과 좌절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후 운동진영 상호간에 적대감으로까지 발전되어 경쟁적 분열과 대립은 이후 민족민주운동의 실패에 있어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

92년 대선에서는 87년 대선이후의 몇몇의 충성을 거치면서 확인한 민주당 정치 제도권내의 운동진영 인지의 진출과 이를 때려 함으로써 양 당의 역할을 심화하게 되고 있다. 87년 대선은 선거의 패배와 3당합당, 정치인민들의 도덕성 실추 등에 의해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은 정점에 달했고 그만큼 국민들의 민간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열망을 재촉할 수 있는 것이 고조되었다. 이 당시 당선자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들을 지지하고 국민들에게 승리의 희망을 제시할 정치적 구심체와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 가장 큰 문제였다. 제 1야당인 민주당의 김대중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지만 그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든가 정당한 사람은 당 내부에서조차 그다지 많지 않았다. 호남 지역의 지역에서 반 DJ 정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은 선거의 승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목표를 최소화하면서 조직의 역량을 생각하여 운동진영에 특히 피로감을 입히는 것이 중요했다. 일각에서는 백기완 후보를 중심으로 한 독자후보추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92년에 결성된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민통연)은 민족민주운동의 대표로서 대선에 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목표를 정했다.

△민간정부의 재집행을 지지하고 민주대개혁 실현을 위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정치적 힘을 강화시키고 조직적 발전을 도모한다.
전국연합은 민주당과 정책연합을 하게 된다.



사진은 원년 대선 당시 널리 유포되었던 '김영삼 씨에게. 민민운 진영이 여당후보의 조직력과 자금력을 따라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민대부분의 정권교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지역감정을 내포한 김대중 후보지리 위기로와 결함하면서 결국 국민들이 거부했던 3당합당을 한 김 영삼씨가 대통령에 되게 했다. 따라서 첫번째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87년 대선과는 달리 민민운진영의 단결을 강조하면서 범민주단일후보단을 민주적 토론과 투표로 결정하기도 했다. 92년 대선 통해 전국연합의 존재를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기회가 되었고 선거 활동을 하면서 전국연합의 지역조직이 건설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선의 패배에 망연자실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제 97년 대선을 향하여 남겨 두고 있다. 전국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은 '국민승리21'을 만들고 권영길 민주노동 위원장을 대선후보로 선정하였다. 원년 권 후보다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현재 노동자의 대표자인 민주노동과 대다수 민민운 진영을 포함하고 있는 전국연합이 함께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볼 때 귀추가 주목된다. 선거라는 공장을 통해 민민운 진영의 조직이 한단계 발전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명제이기 때문이다.

허윤숙 기자

한국 미래사회 발전을 위한 전국대학교수협의회 결성 발기문

존경하는 전국 3만여 대학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가 하나되는 새로운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경제는 도탄에 빠졌고 정치는 가히 무정부 상태에 이르러 혼미해 혼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깨어있는 지성이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정부도 계속 좋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퍼슨은 역사의 회고에서 나쁜 정부는 '권력의 파다'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12월에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수행적 정권교체를 통한 자유민주주의의 단결과 지역화합을 통한 국민역량 결집으로 국가와 민족의 제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전국의 뜻있는 교수들의 의지를 모아 (가칭) '한국 미래사회 발전을 위한 전국대학교수협의회(약칭, 한미전국대학교수협의회)'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현 시국과 관련 대학 지성인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대학 교수님!

언뜻 보기에도 미미한 듯 보이지만 우리 대학 지성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있는 학문이 거룩한 역사를 기록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현 시국을 감안해 우리의 뜻에 동참해주시던 고여 한 교수들의 의결이 후세에 기록되리라 확신합니다.

1997. 11.

(가칭) 한국 미래사회 발전을 위한 전국대학교수협의회 추진 위원회

연락처: 대표전화 (02)529-6006, (02)529-0770 FAX: (02)577-3436 E-Mail: DONPARK@mail.hitel.net

행 사 내 용

- 일시: 1997년 11월 7일 오후 5시~7시
- 장소: 호텔롯데 3층 사파이어 볼룸(소공동)
- TEL: (02) 771-1000

◆프로그램

- 등 록 : 오후 4시 30분 부터
- 식전행사 : 오후 5시~5시30분(30분)
'글눈(Gulnun 97)시스템 활용시범' 이인동 박사(한국 인식기술 대표)
강의교재, 보고서, 원고정리를 위한 스캔너 활용 방법 설명(S/W할인권 배부)

◆한국 미래사회 발전을 위한 전국대학교수협의회

I. 21세기 한국 교수의 역할과 사명(25분)

II. 한국 미래사회 발전을 위한 전국대학교수협의회 결성(35분)

경관 및 회장단 인준

현 정치 상황에 대한 교수들의 입장 표명

식후행사(15분): 작은 음악회(테너 신영조, 소프라노 윤명희)

· 만찬(1시간)

●한미전국대학교수협의회 결성 기금 모금 참여 안내

후원회 예금 계좌

조흥은행 981-04-169810(예금주: 한미전국교수모임)

※후기: 발기인 명단은 행사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지나

◀ 선택 받은자?

바람이 제법 차지만, 화창한 아침이다. FBS 아침 방송에서 나오는 활기찬 노래로 발걸음이 흥이난다. 그런데... 노천바닥에 흩어진 저 쓰레기들! 어제 열렸던 행사의 뒷 미물리가 너저분하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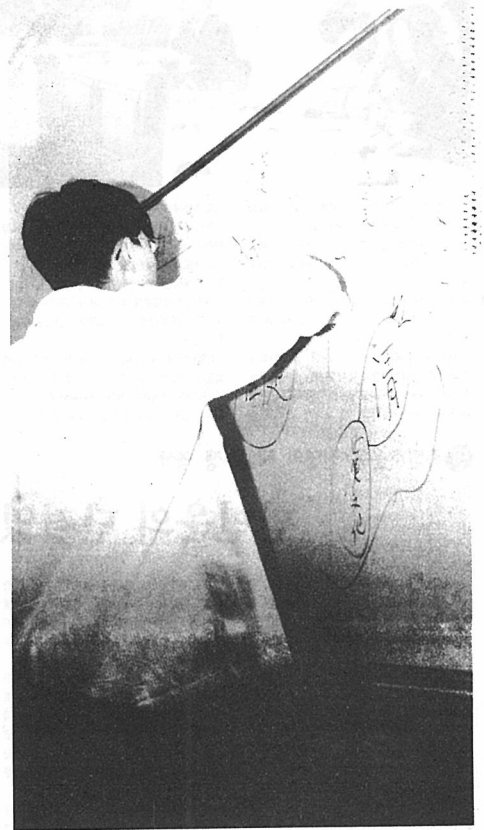
"저 팔자 좋은 학생들이나 찍어 줘." 하리며 청소하기에 바쁘신 아저씨. 행사를 잘 치르기도 뒷정리를 못하면 여러 사람을 수고스럽게 한다. 우리는 선택 받은자가 아니다. 최소한의 지킬 일은 해야 할 것이다.

▶ 더러운 세상도 칠판 닦듯이

강의실이다. 수업 시작을 기다리는 학생들의 모습은 천태만상이다. 복도에서, 강의실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학생들, 수업준비를 하는 학생들, 나처럼 멀뚱멀뚱 앉아만 있는 학생들...

오늘은 좀처럼 보기도 못한 학생을 봤다. 수업시간 전에도, 쉬는 시간에도, 수업이 끝난 후에도 칠판을 닦는...

옆사람, 수업을 같이 듣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봉사,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세상의 더러운 부분도 닦여지겠지.



외대학보는 지령 700호를 맞아 외대인들의 생활을 중심으로한 사진특집을 마련했다

외대라는 공간에서 수업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 외대인은 「외대」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학교 안에는 의외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이 많다.

이런 사진특집에 미처 소개되지 못한 것도

세심히 돌아볼 수 있는 관심과 여유를 가지는 것은 어떨까?

나날이 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 갈 것이다.

이 특집면은 우리 학생의 하루 생활속에서

그가 무심코 지나치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이야기로 전개한다.

◀ 연락망 이상무

"오늘은 무슨 일들이 있을까?"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소극장을 예약장으로 사용한다구? 이처럼 대자보는 우리의 연락망, 통신망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매년 학생들간의 치열한 논쟁의 현장이 되어주고, 학생들간의 요구사항들을 개진하기도 하고, 대자보를 읽으면 학교가 한눈에 보인다. 한 번 읽어봐!

제 안 함 (학 생)

▲ 나, 불만있어

'외대에 불만 있습니까?' 우리학교 곳곳에는 제안함, 건의함들이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이용률은 매우 낮다. 정당한 우리의 요구는 외대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건의함, 제안함이 어딴다구? 본관 1층 총장실 앞에도, 노조실 앞에도, 학생회관 1층에도...

◀ 배고픈 소크라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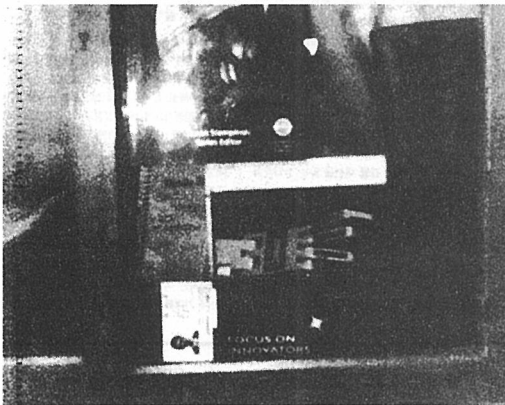
전공수업을 4시간이나 연속 들었더니, 배가 무척이나 고프다. "아주머니, 많이 주세요!"라며 빈천도 들뜬다. 매번 남기게 되는 줄 일면서도 순간 배고픔에 욕심을 부리게 된다. 음식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적당량만 먹는 것,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기분이 아닐까.

치지만 아무도 모르는...



◀ 가도 가도 끝없는...

어제밤에 꿈을 꾸었다. 어문관에서 수업
업을 마치고 자연대로 가는데, 가도가도
끝이 없는...
왕산은 정말 크다. 다른 건물로 이동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다. 그래서 가
꿈은 이렇게 자동차 함께 타기는 고맙고
재미있다. 하지만 자동차 함께 타기는
꽤나 어렵다. 그래서 왕산은 더 드넓게
느껴진다



제작 사진부

◀ 외대 분실물 센터

얼마전에 학생증을 잃어버렸다.
기대반, 표기반으로 연락을 기다리
던 차에 교내식당앞 수위실 창문에
붙어있는 내 학생증을 발견했다.
바로 그곳이 분실물 센터(?)였다.
각 건물 안내실마다 분실물이 보관
되어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안내실
마다 분실물은 쌓여만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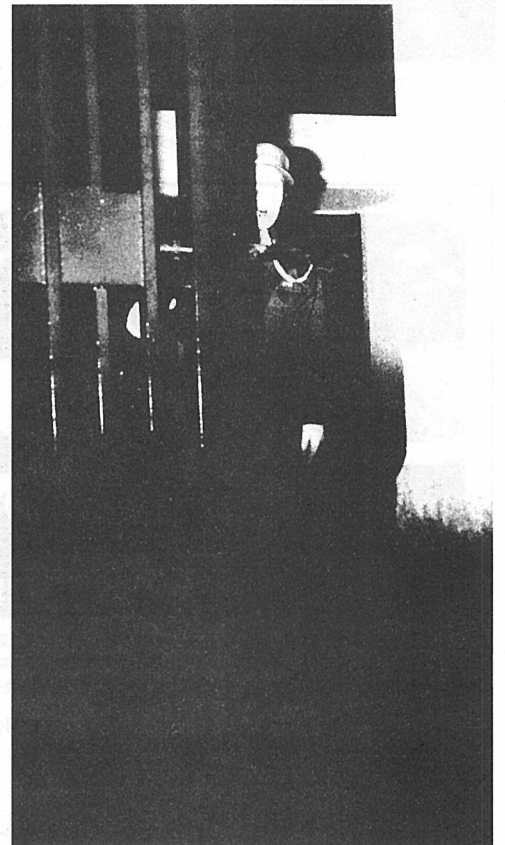
▼ 열린 외대

은행임을 주고 있는 꼬미들을 만났다. 그것도 외대에서...
"뭐하려고?" 묻자 "선생님이 주원오래요."라며 은행임에 묻은 먼지를 입으로 불어 털어낸다.
대학은 지역사회에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학생·교수·직원 과 함께 주민은 제 4의 식구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 밤손님

"아저씨 잠깐만요" 밤 12시면 반드시 잠기는 정문. 오늘도 조금만 늦었으면 월당을 했어
야 했다. 나같은 경우를 당하는 학생들이 꽤 많다. 밤늦게 까지 공부를 하거나 세미나를 늦게
까지 하거나 학생화행시를 준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밤손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97 세민제 보도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97 세민제

계속 지적되는 문제 여전히 해결 못해



지난 달 29일(수), 30일(목) 일 일간 서울 베틀러 노천극장에서 NIPS(아이) 세계평화를 노래하라!를 기치로 내건 97세민제(세계민제)가 사민아과, 태극아과 등 동·서양아과 어문계열 9개과 총 11팀의 참여로 개최되었다.

독일어과 원어노래의 공연으로 막이 오른 세민제 첫째 날은 사민아과·태극아과·미인어과·네덜란드어과의 총 5팀의 원어 노래 공연과 태극아과·아랍어과·사민아과·인도어과·베트남어과·러시아어과의 6팀의 민속춤 공연이 있었다.

특히 사민아과와 원어노래의 ‘라비바’와 러시아어과 춤곡의 ‘세호’ ‘제비’ 등의 민속 춤 공연은 많은 호응을 받았고 둘째 날에는 심상현(동양·태극 92)씨와 천지인 보컬 출신의 권민혜(서양·영어과 87)씨등 외래가 많은 음악인의 공연이 있었다.

한편 권민혜씨는 ‘참소’ 김씨를 만났네’와 ‘청계천 8가’를 포함한 노래를 부른 후 ‘백이’ 장강한 대학원생의 제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다’며 말하며 이 생각을 담은 ‘영웅본색’을 불러 큰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의공연과 더불어 외래인의 독특한 행사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이날 각 열린 97세민제는 첫째 날 150여명, 둘째 날 30여명이 참가해 지난 95세민제 때 노천을 가득 채웠던 것에 비해 주최측인 총학생회의 준비부족을 보여 주

었다. 또 추운 날씨를 감안하여 공연 팀이나 관객을 배려하려 했다면 노천극장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강당이나 소극장을 이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행사를 본 박재성(동양·중국어 3)군은 “이번 97세민제를 세민제의 역사에 넣어야 하는만큼 말들이 학생들이 사이에서 오간다고 며 주최측의 준비부족을 표현도 하였다. 또 차재훈(서양·프랑스어 3)군은 “둘째 날은 이벤트식 보여주기로 과연 세민제의 취지에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세민제가 학생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너무 부끄럽고, 앞으로 세민제를 계속하면 좋겠어요”

태극민속 춤을 공연했던 김하연(동양·태극 1)양의 밝은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올해 세민제 준비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서울 베틀러 보다 좀 더 많은 조금이나마 앞선 경험을 가진 용인 베틀러와의 교류가 필요하겠다.

다루나 세민제 때마다 지적되었던 비언어 계열의 소외문제가 올해도 역시 지적돼 앞으로 비어문제 참여에 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김민석 기자

생활 시평

노천공연을 두려워 말라

서울에 첫눈이 내린 다음날, 아침이온이 영화 1도리며 학생들의 옷차림이 두터워진 지난 31일(금) 추운날씨 속에서도 100여명의 학생이 하나의 공연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추운날씨를 무색케하는 학생들의 열렬한 웃음소리는 지나가는 이들의 발목을 잡기에 충분했고, 공연을 보는 학생들의 웃는 자구만 늘어났다. 채 차지지 않은 세민제 준비세트를 무대삼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리저리 관객들의 큰 호응으로 공연을 감상하던 이들은 다음날인 ‘가면극연구회’였다. ‘노천에서’ 공연하지 말아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최근 노천극장에서 진행한 공연들이 ‘피’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가면극연구회’의 공연 ‘난장’은 단연 돋보였다. 그 짧은 비로 공연 전반에 걸친 세심한 배려에서 찾을 수 있다. 베틀러 전체를 뒤덮은 공연소식들, 추운 날씨를 대비해 노천극장에

놓아놓은 스티로폼, 흰 대천장과 맞아 떨어진 공연 주제, 풍자가 생생한 마네편에서 빠질 수 없는 웃음요소 등 공연준비에서부터 홍보까지 하나의 완결된 ‘공연’이었다.

공연은 분명 찾아오는 관객을 위해 존재한다. 물론 공연을 준비하는 이들도 공연을 통해 스스로 만족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재야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좋은 내용의 공연을 갖더라도 보아주고 환호해 줄 관객이 없다면 공연을 준비한 이들이 허탈해하는 건 변함 없다.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관객과 함께하는 좀 더 큰 기쁨을 맛볼 기회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면극연구회’의 공연은 다른 동아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공연만 열심히 준비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이제 발상의 전환을 요한다. 학내공연도 공연연습 뿐만 아니라 홍보와 관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추운 날씨 속에 내려 퍼졌던 학생들의 웃음은 그림 일점해주고 있다.

홍연희 기자

문 화 단 신

서울

사회대 노래배 연합공연, 창작곡 선보여

올해 통일 노래 한마당에서 ‘열사의 이름으로’라는 곡으로 대상을 수상한 사회대 노래배 연합이 오는 4일(화) 소극장에서 공연을 갖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신발과 노래배 ‘새날’과 행정학과 노래배 ‘노래터’ 그리고 1학년 사회대 노래배가 참가해 계열의 배합을 알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해보는 한편 사회대간의 통일된 모습을 그리는 대중의 장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한층층 출발전 때 구승민(사회계열 1)군을 위해 노래와 함께 두곡 정도의 창작곡과 올해 통노대 대상 수상곡인 ‘열사의 이름으로’ ‘청계천 8가’ ‘붉은 연꽃이 찾아오고’ ‘한층층 전군가’ 등을 공연할 예정이다.

노래배 재강 김승호(사회·행정 2)장은 “이번 공연에 창작곡을 3곡정도 준비하였고 연습도 실천처럼 철저하게 하였기에 후회없는 공연이 될 것 같다”며 공연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FBS 방송제, 오는 4일 열려

오는 4일(화) 대강당에서는 열 아홉번째 FBS 방송제 ‘황소의 난’이 열린다. ‘소’의 해인 올해를 정리한다는 의미로 ‘황소의 난’이라 이름 붙은 이번 방송제는 12월 대상을 맞는 정치권과 율령가 마지막인 인방만 흥의 4년을 되짚어 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밖에도 학생식당 문제, 거짓말에 관계한 이야기, 푸른빛에 대한 애기가 선 보일 예정이다.

특히 새롭게 마련된 토크쇼에서는 강성삼(사·생·산 4)사회대 학생회장 김형동(서양·영어 4) 학생 복지위원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

서윤경 기자

누는 이때 두 사람이 학생식당에서 하룻동안 직접 체험한 것을 담은 일상이 선 보인다.

‘해결’ 정기 전시회 개최

지난 달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5일간 교내 전시실에서 만화 동아리 ‘해결’이 스물 두번째 정기전시회를 개최했다. 회원 각자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한 작품이 선보인 이번 전시회에는 요즘 가장 큰 관심사인 월드컵 축구이슈를 소재로 다룬 이상훈(사회과학계열 1)군의 ‘월드컵 축구이슈’, 문화세대를 풍자한 이지현(동양·일본어 2)의 ‘아리랑자’ 등 총 10편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DI·과와 함께 춤을을 선보인 해결 비평가 장 유성준(서양·영어 2)군은 “교내전시실 상태가 안 좋아 준비하는데 힘들었다”며 “이번 전시회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만화를 더욱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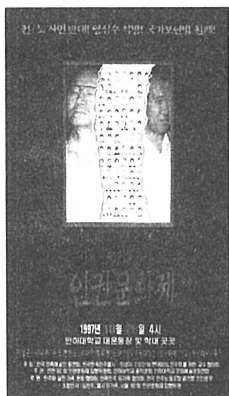
‘터울림’ 오늘 공연예정

타이커와 노래배 ‘터울림’이 오늘 소극장에서 두 번째 공연을 개최한다. ‘민중가요’와 대중문화 속에 안길 수 없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주제로 제작된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민중가요에 대한 설명과 역사 그리고 공연의 주제에 대해서 다뤄볼테니식으로 진행된다. 이 날 공연에는 지난 통일노래 한마당에서 3위를 차지한 ‘푸른 날개짓으로’와 ‘아침이슬’ ‘동지’ 등의 노래가 선보이며 왜 민중가요는 대학문화에만 존재하는가에 대한 터울림의 생각을 전달한다.

터울림의 패강인 이복희(동양·타이커 2)장은 “노래 뿐만 아니라 영상, 기술까지 준비해왔지만 이 공연을 통해 민중가요가 대중화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밝혔다.

정부의 ‘인질극’으로 막내린 인권영화제

“제2, 제3의 인권영화제 계속 해나가겠다”



인권영화제 단막에 대한 평으로 열린 1회 인권영화제는 28일(화) 인화대에서 2관아에서 참여해 대상을 수상한 이상훈(사회과학계열 1)군의 ‘월드컵 축구이슈’와 ‘아침이슬’ ‘동지’ 등의 작품이 함께 했다.

지난 달 28일(화) 인화대에서는 ‘인간을 위한 영상을 찾아서’를 기치로 2회 인권영화제의 서를 개최(본보 698호 참고)와 인권영화제가 조기종결되도록 전·노 사민 반대와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1회 인권영화제가 개최되었다. 인권영화제는 23일(목)부터 27일(월)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인화-2회 인권영화제’ 기간의 분회기를 이어 28일(화)에 열리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인화-2회 인권영화제’는 지난 달 3일 막을 내린 ‘서울-2회 인권영화제’와 마찬가지로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조기종결하게 되었다. 경찰은 영화제 시작 전부터 탄압의 구실을 찾다가 서울-2회 인권영화제에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던 제2 4·3정경을 다룬 개막작 ‘레드헌트’ (1997. 조성봉감독, 하녀영사)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며 원천봉쇄 방침을 밝혀 영화제 기간내 폐문검역을 실시하여 많은 이들

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였고 시범기간의 인화대 학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다. 정권의 압력을 받은 대학당국도 상영장 폐쇄, 단절 등으로 탄압에 합세해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인원 500여명의 관람과 영화제 탄압 안의포지인 훗날시위에 연인원 350명의 참여, 3일간의 탄압정식 서명 4000여이라는 호응에 힘입어 인권영화제 일정을 지켜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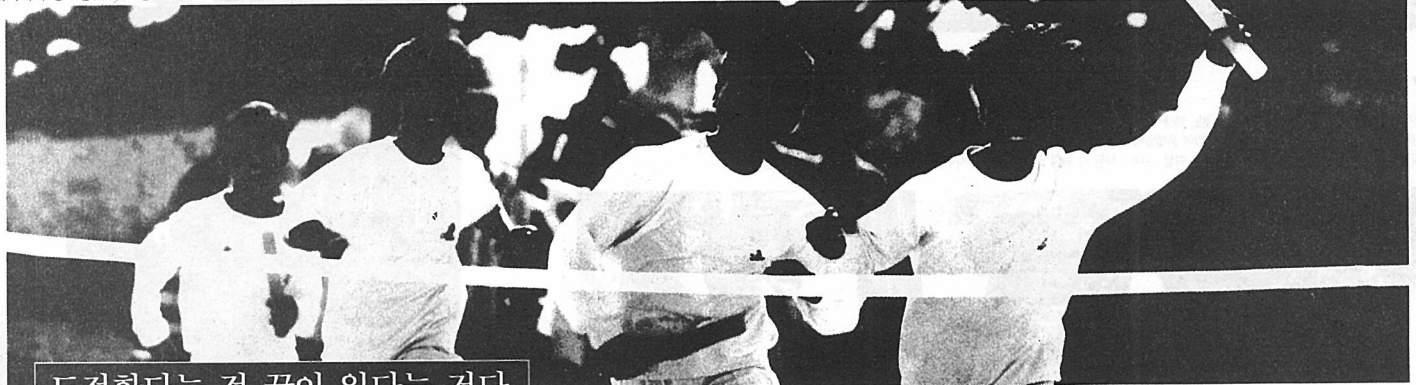
이번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인권영화제 사정심의를 받지 않았고 영화제 재원 마련을 위한 모금활동이 불법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이은주(33·노동정치연대 인권지부 의장)씨와 집행위원인 이은주(33·민예총 영화위원장)씨, 이주성(33·인문영상장단)씨 세 명을 긴급구속하였고 11명의 집행위원 전원과 조지위원장인 김영규(인화대·행정)교수를 구속할 방침을 세웠다. 집행위원장인 이은주씨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위반을 추기하겠다고

합박하였다. 또 영화제 주최측인 인화대 총학생회에 대한 압수까지 강행하려 하였다. 그러면서 영화제를 조기종결하면 구속된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공권력을 동원한 ‘인질극’을 벌였다. 결국 아홉수 없이 인권영화제의 첫 지방 개최인 인화-2회 인권영화제는 25일(토) 조기종결하게 됐다.

하지만 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이은주씨는 “비록 정권의 탄압으로 조기종결하였지만 한밤바의 위대한 사정심의 거부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인화대기 아닌 다른 곳에서 인권영화제 나가지 않겠다. 결국 아홉수 없이 인권영화제를 단호하게 말하겠다.

다행, 현정권의 문화정책의 폐쇄성을 보여준 계기가 된 2회 인권영화제는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후, 군산등 다른 지방으로 순회공연을 하며 사정심의(검열)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에너지와 정보통신의 선경



도전한다는 건 꿈이 있다는 거다.

누구나 그런 심리가 있다. 어릴적 운동회때 계주시합, 평평한 긴장 속에 느꼈던 짜릿한 승부의 충동. 거기엔 역전의 기대와 그 속에 발휘될 자신의 탁월한 활약에 대한 꿈이 있다. 인생의 승부도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순서대로 정해지지는 않는 법.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만들어가는 ‘최고의 도전’이야말로 꿈의 의미를 아는 젊은이의 선택이다.

선경은 에너지·화학과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에 새로운 자원개념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원인 나라, 그 사람을 키우는 선경.

※선경은 연중 상시로 인재를 모집합니다.

• 선경계정계정번호 (02)28-0222, 0212 사내통신회선 36-1 선경빌딩 1층
• Internet 계정 Homepage http://www.sk.co.kr

SUNKYONG
선경그룹

선경그룹 주요회사 SK는 유공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에너지·화학부 SK/선경에너지(SK)/SK에너지화학(SK)/SK에너지화학(SK) ●정보통신부 SK/선경정보통신(SK)/선경정보통신(SK) ●금융부 SK/선경금융(SK) ●건설부 SK/선경건설(SK) ●화학·소재부 SK/선경화학(SK) ●유통부 SK/선경유통(SK) ●환경·에너지부 SK/선경환경(SK)

미·중, 동아시아 패권 쥐고 흔들다

미... 중국 견제위해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중... 러시아와 관계개선으로 미국 견제 한반도... 미·중·러·일의 주도권 장악 위한 각축의 장으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끊임없이 관철시켜온 세력은 단연코 '미국'이다. 그러나 아무도 도전할 것 같지 않던 이 패권질서에 깨어나는 대륙 '중국'이 도전장을 던지자 미국은 긴장하며 기존의 동북아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영항력을 확대하여 예초는 곳 또한 동아시아 진출의 고두보라 불리는 지리상의 핵심지, 한반도는 이렇게 개편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아주 핵심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변화하는 동아시아질서의 한 단편을 볼 수 있게 하는 <저희집, 미·일 방위협력지침, 미·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외교적인 사례들과 관련 정보는 전세계 동아시아정세와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그 본질을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글을 세련되게 갈겨 연재한다. 이 기획은 특별히 미국 뉴욕에서 우리나라의 통일운동의 줄바본 방향과 이론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추홀통일연구소의 한호석 소장의 글을 실기로 한다.

한집자

신중세력 중국의 부상

유명한 초강대국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적 질서는 미·일 안보동맹과 한·미 안보동맹으로 뒷받침되어 왔다. 그런데 아무도 도전할 수 없을 것처럼 견고하게 보였던 이 패권질서에 대해 도전장을 던지기 시작한 나라가 있으니 그것은 중국이다.

1979년 덩샤오핑과 지미카터가 손을 잡고 국교를 수립한 뒤로 중국 경제는 고도 성장 계도에 진입했으며, 1980년 중반에 이르러 중국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전략을 포기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더욱 급속히 팽창하면서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높여주었다. 지난 20년 동안 양국의 교역액은 4배 이상 늘어났으며, 여기에서 흑자를 보고있는 쪽은 중국이다.

드넓은 영토, 엄청난 인구, 풍부한 자원을 가진 중국이 고도성장을 거듭하게 되자, 미국을 중심으로 짜여진 역내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새로운 정세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미국이 동아시아의 집속·교류를 급속히 확대하면 한 세기 전에 나폴레옹이 이른바 '황화권(黃禍論)'을 다시 꺼내어 '올림픽'은 일부 미국인들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의제가 있는 시점에 가서는 결국 미국을 앞질러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경계논리를 펴고 있다. 최근 덩샤오핑의 죽음, 홍콩의 중국 귀속, 잠재된 주석의 러시아 및 미국 방문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정책면에서의 정치·외교적 위상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본주의가 중국에 대해서 경제·문화적으로 침식하고 있는 범위와 수준은 날로 심화·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이른바 '화평연변(和平演變)'이라고 부르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열강들이 중국의 개방정책에 편승하여 중국 내부에 침식하는 속도는 중국의 국력이 강화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개방정책으로 돌아서자 자본주의 열강들은 중국을 빠른 시간 안에 자본주의화함으로써 거대한 중국대륙을 상품과 자본의 시장으로 분할·점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열강으로부터 침탈을 받았던 청조 말의 시련을 잊지 않고 있는 중국은 사회주의 노선을 버리고 개방정책은 확대·심화되되 개방에 편승한 외세의 침식을 방지하기는 민족주의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1989년에 일어난 천안문사태에서 중국공산당이 '인민의 군대'를 동원하여 시위군중을 유혈적으로 진압한 것은 중국공산당이 천안문사태를 외세의 시위를 받은 반체제세력이 급진적인 자본주의화를 추구하며 혼란을 일으켜 당의 통치체제를 위협한 사태로 인식하였으며,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책면에서는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를 여전한 중국의 체제와 이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중국의 사회주의는 중화작업을 받아 그 성격이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자본주의적 성격이 지배적으로 되고 있다. 지금 이러한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중국은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면 중국공산당의 통치력마저 이완되면서 거의 완전한 자본주의의 국가로 바뀌게 되리라고 내다보는 것도 무리한 예측은 아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자본주의화가 아무리 촉진된다고 하더라도 21세기의 중국이 미국의 관리권 안으로 백일이면일·중속 당한 상부 자본주의의 국가로 전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화 되어 가는 중국은 중화 민족

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패권국으로 나서려고 할 것이 분명하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세계의 중국은 동아시아에 구축된 미국의 패권적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도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중국을 겨냥한 미·일 협력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겉으로 보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말로 가려져 있지만, 이러한 발언들은 한낱 외교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속으로는 동아시아의 세력관도에서 신중세력과 수구세력이 필연적으로 격이아 하는 갈등양상을 띄고 있다.

앞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하면 한수목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적 질서를 계속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팽창에 대한 차단책을 형성하고 견제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도차이나반도, 대만,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이 세 지역을 있는 차단' 막을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일본과 기존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이 지역에서 미·일동맹 체제의 정치·군사적 역할과 범위를 한층 고조·확대할 수밖에 없다.

최근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채택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대해서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발한 것은 그것이 바로 자국을 겨냥하게 된 차단전략의 중심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미국이 교전당사국인 베트남과·서둘러 국교를 수립한 것은 인도차이나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일단 외교적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거의 같은 시간대에 접어들어 있었던 대만해협의 위기와 4자회담의 재안은 미국이 인도차이나반도→대만→한반도를 잇는 중국 차단책을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구도를 행동을 옮기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력을 펼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가늠해는 중국이 이란에 미사일을 판매하여 이란의 군비를 현대화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페르시아만을 봉쇄할 수 있을 만큼 증강되고 있는 이란의 무력 강화의지를 저지하기 하는 다급한 이유도 있다.

만일 이란이 페르시아만을 봉쇄하면서 역내 미국 함대를 미사일로 공격하게 되면 원유공급선이 파괴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에 '원유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겨냥한 중·러 관계

미국이 중국 차단전략을 추진하자 중국도 이에 맞서기 위해 중·러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려고 사투르고 있다. 지난 4월 정적인 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발표된 '국경선(國境線)의 다국화와 세 국경점(三國境點)에 관한 공동선언'은 미국의 패권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장이었다. 열린 대통령도 오는 11월초에 중국을 방문하여



미국은 자신의 패권적 질서를 유지 강화하기위해서는 중국의 팽창에 대한 견제력을 강화할 수 밖에 있는데 최근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채택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중·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갔다는 의지를 과시하게 될 것이다.

날로 갈등양상을 띄어가고 있는 미·중관계는 인도차이나반도에서는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양상으로, 대만 해협에서는 쌍방 사이의 중동양상으로, 한반도에서는 협상을 위한 재한적 공조양상으로, 각각 나타나 바 있다. 대만 문제에 있어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와 '대만관계법'은 필요한 경우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하나의 중국'을 이루겠다는 중국의 대만 통일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으며, 한반도문제에 관해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한반도에서 펼쳐지는 4자 관계의 변주곡

미국이 한반도문제에 중국을 끌어들이 4자회담을 제안하게 된 까닭은 물론 북한의 3자회담 제안을 회피하기 위한 역제안이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상대하기 까다로운 북한을 끌어당기려면 미국의 단독적인 힘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미·중 공조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타당한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속셈은 효력을 낼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미국으로서의 중국을 끄러들인 4자회담이라는 대안밖에는 다른 보충할 수가 없었음에 더하여, 4자회담 구도에 들어간 중국은 북한의 반감을 사면시켜서 미국과 공조관계를 유지할 만큼 외교적으로 하술하지 않으며, 만일 4자회담과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이 의견대립을 보일 경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중립을 지키거나 타협한

<글 쓰는 순서>

1. 미국의 안보도 정책 - 지역분쟁과 지정학적 대립과 미국과 한·중·러의 본질
2.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내건 미국의 중국 정책
3. 한반도에서 펼쳐지는 남·북·미·중 4자 관계의 변주곡

을 제시하는 선에 머물게 될 것이다. 따라서 4자회담은 실제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한낱 외교대결장일 수 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한은 4자회담 구도에 발을 댄채 놓으면서 자신의 발언권을 지탱시켜온 유일한 발판인 한반도문제의 남북합작사 해결의 원칙마저 스스로 무너뜨리는 외교적 손실을 입었으며, 결국 미국의 중국 차단전략에 발려 들어가 자신의 안보이익을 잃어버리는 실책을 저지르고 말았다.

지금 남한은 북한에 대해서 4자회담에 나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고, 북한은 이에 대해서 속으로 코웃음을 치고 있다. 남한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은 대북 정책의 기초로 삼은 이른바 '북한 붕괴설'이라는 가설은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량난으로 전지구 한몫을 받고 있는 북한을 남한으로부터 식량을 지원 받기 위해서라도 결국 4자회담에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보았던 남한이 상황인식은 지난 시기 얼마동안 상당한 정파력을 가지고 확산되었는데, 그것은 너무 인위적 상황판단이었다.

왜냐하면 북한은 남한의 식량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과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을 얻어내는데 엄청난 식량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북한사회 내부에 제정하고있다고 하는 이른바 '백두의 붉은 기'를 앞세우고 '고난의 행군'으로 나아가면서 식량난의 고비를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이어서)

한 호 석

<미추홀통일연구소장>



전기가
어둠속은 정열을 뽐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세계일류 전력회사와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세계가 인정하는 일류 전력회사입니다.

- * 「에너지 대전」 수상!
세계적 권위의 에너지 전기 기술 (E.T)가
올 해의 가장 우수한 전력회사로 한국전력을 선정하였습니다
- * 국민 인당 1kW 발전설비 달성!
한국전력 발전설비 7,000만kW로, 총인구의 2.07만kW를
충당하였습니다
- * 북한 원자력발전소 착공!
세계가 인정할 원전 운영능력과 기술력을 북한 원전건설의
역사적인 첫 걸음 되었습니다

한국전력

김영삼정부의 교육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YS가 반교육대통령인 이유들...

경쟁확대, 사교육비부담 가중, 학사행정자율화 미흡 등으로 교육황폐

지난해에 김영삼 정부 집권 3년 동안의 교육정책과 사회복 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했다. 그 때의 평가는 무엇보다도 김영삼 정부의 재 정책에 대한 정치철학에 근거하였다. 그것은 정부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가 되는 철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의 철학은 바로 정립되었는데 재반 정책이 부분적으로 잘못 수립되었다면 그것을 수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철학이 잘못되어 있으면 정책이 잘 수립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역기능의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김영삼정부의 재반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철학의 빈곤 또는 잘못된 철학이다.

자유의 타의든 일반적으론 김영삼정부를 문명정부라고 부른다. 이것은 김영삼정부가 이전의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군사정권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김영삼정부의 모든 정책에는 개혁이란 말이 늘 따라 다녔다. 그러나 지난해 평가는 김영삼 정부가 과거 군사정권 때 보다 더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올해의 평가도 마찬가지이다. 아니 말할 말하면 올해의 평가는 작년 보다 더 못하다. 중장적인 사상을 평가하면서 향후과제도 포괄적으로 언급하려고 한다.

김영삼정부의 교육정책은 1995년 5월에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에 근거한다. 그런데 작년 평가 때도 지적했지만 이 개혁안의 철학은 인간과 사회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아니라 무한 경쟁과 승리이다. 이 결과 이 개혁안에 따른 재반 교육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결과를 점점 더 노점시키고 있다.

첫째로, 이 교육개혁안은 세가지 면에서 개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수요자 중심 곧 학생중심주의로의 전환 2)일반 학교교육으로의 전환 3)자율경영의 확대이다. 그러나 이 개혁안의 기본 철학이 인간, 사회정의, 공동체 정신의 함양이 아니라 '경쟁에서의 승리'이기 때문에 이 교육개혁안은 인간, 사회정의, 공동체 정신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교육개혁안을 통해 혜택을 받는



리 매년 증가하여 현재 연간 사교육비는 20조원을 넘었다. 여기에 비공식 해외 유학비용까지 포함하면 30조원, 또는 그 이상이 될지 모른다. 이것은 정부 전체 예산의 1/3 내지 1/4에 해당하는 막대한 비용이다. 이런 막대한 사교육비는 한 가정의 가계생활을 압박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임금 인상의 문제 그리고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한 부정부패의 문제와 연결되고

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우리 사회를 부정부패의 땅이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로, 교육개혁 정책에서 중요한 것이 입시지옥이라 불리는 대학입시 개혁이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이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대학 지원의 기회를 확대한 것은 상대적 개선책이 된다고 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 동기는 크게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공식적인 측면에서 배우려고 하는 욕구에 의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력 차별 사회의 병폐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측면으로 단순히 대학 졸업장을 따기 위한 것이다. 배움 때문에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면 되고, 졸업장 때문에 대학에 가려는 학생은 학력 차별을 철폐하면 된다. 학력 차별을 철폐하여 대학입학의 가수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입시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대학입시의 근본적인 해결은 대학 입시를 대학의 자율로 맡기는 것이다. 여기에 따르는 혼란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매년 치르는 입시 경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입시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넷째로, 그동안 한국의 대학은 철저한 정부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발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을 건장하게 개혁해야 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대학을 개혁하려면 정치적, 경제적 논리를 넘어서서 대학 교육의 본질에 근거해 개혁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대학 개혁은 정치적, 경제적 논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개혁방안은 대학을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다. 모든 것을 양적으로만 평가하고, 자율적 경쟁이란 미명 아래 대학을 획일적으로 서열화함으로써 대학을 더욱 황폐하게 하고 있다.

대학의 생명은 자율성에 있다. 그러므로 헌법에 대학의 자율성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은 이 자율성에 근거해 교수와 학생의 자치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가 교육개혁의 관건인데 현 정부는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려면 그동안 정치 도구로 목적으로 악용되었던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학교 자율성의 핵심은 학사행정의 자율적 결정, 교사의 교수권 보장, 학생의 학습과 자치권의 보장 등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개혁안에서 말하는 자율성 확대는 이런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자율이란 미명으로 가진자의 무한 경쟁을 보장하는, 곧 부정부패를 정당화해주는 것이다.

학사행정의 자율을 위해 교육자치제가 행정 편의가 아닌 교육 민주화를 위한 원리에서 개혁되어야 하고, 교사의 교수권 보장을 위해 교원의 신분보장과 교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자유가 주어지자 하며, 학생의 학습과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입원 자원에서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성재 (한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

학부제시행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5.2%: 성적에 따른 전공 배정
19%: 구성원들의 공동체적식을 무시시키고 경쟁을 부추긴다.
17.6%: 학부제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미비(강의실, 교수...)
14.8%: 구성원들의 동의없는 시행
13.4%: 연공성능은 과제의 통합으로 인한 학습상의 혼란

존경하는 실시간

O...우리는 실시간을 존경합니다. 너무나 고마운 분들인 것 같습니다. 실시간들이 가시는 길은 곧이 나 눈부시고, 화장실에는 차음벽은 후지까지 걸리게 됩니다. 실시간들이 매일매일 외대에 오신다면 저희는 더 이상 학교에 바랄게 없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여러분이 가지마자 화장실에 휴지도 같이 갑시다. from 실시간을 기다리는 외대학생이. (송2)

O...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방에 누워 9시뉴스를 보니, 철거를 했으면 자자분하게 놔두지 말고 빨리 치우고 건물을 지어야 할 것이라 보고하는 고발사. 순진한 크로니클러 철거한 것을 자자분하게 놔두는 불의한 현실에 어쩔없이 흥분하며 곧바로 철거현으로 뛰어갔는데.

철거를 시작한 운영정책, 크로니클러에게도 다가가고 '이발 다 부서버리자'고 해서 '이발'을 주머니에 넣어 나사 철거를 위해 뛰쳐나온 크로니클러 한미다 "자자분한게 문제가 아니라 죽을뻔 했잖아." (최)



O...크로니클러 교양관 앞에 갔더니 사람들이 교양관 정문으로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에 왜 그라냐고 직원에게 묻자 대동봉(대학의 종발을 고하는 평가) 때문이니 아를 수 없다고 말했다.

덕분에 학교는 깨끗해졌지만 얼마 못갈 것을 우려한 크로니클러 이의 대안을 다른 직원에게 물었다.

친구들 "그냥 열심히 하면 돼 뭐~!" (권)

O...외대의 자랑이라든 '세계민속예술제(세민제)'의 그 대단함을 들어온 세네기 크로니클러는 큰 기대를 가지고 '출산이 세 세계평화를 노래하라'는 가치를 내건 97세민제를 보라 노천극장에 가 보았는데, 형식없이 무성하게 진행된 보여주기 식의 공연과 초리함은 그를 실망시켰음에도, 과연 97세민제를 세민제와 부를 수 있는 것인지 그는 아주 의아해 앞에 앉았던 선배에게 물어 보니, 그 선배가 말하길 "약 30명이 세계평화를 노래하고 있구먼" (석)

30명의 노래

용인 학부제문제 설문조사 분석

덕성여대처럼 우리도 폐지해야 71%

전공선택권 보장이 관건

학부제 및 계열제가 96학년도부터 우리학교 양 배움터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된지 2년째. 그 부작용과 폐해는 이미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덕성여자대학교에서는 학부제 열재 문제해결의 희망적인 전례로 남게될 결정이 있었다. 바로 학부제 완전 폐지와 97학번들의 전공선택권 보장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학교 학부(계열)제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식과 불만도는 어느정도일까.

용인배움터 학부제 실시 대상 1학년생 79명을 표본추출, 설문한 결과 현행 학부제 형태에 만족을 표한 학생은 불과 6.2%에 지나지 않았고, 불만이라고 답한 사람이 93.8%였다.

또 '각 학문의 특성을 접해본 후 직장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한다' 등 학부제가 지니는 본래 취지의 구현 정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98%가 50%이하라고 대답했다. 학부제의 실시취지 구현자체가 관건에 달한 것이다. 응답분포는 '전혀 구현안됨' - 40%정도 '구현' 사이가 가장

두껍게 나타났다.

반대로 학부제가 지닌 문제점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 전체가 40%이상으로 답했고, '70%정도', '100% 모두 문제'라고 한 사람이 각각 22.8%로 가장 많았다.

이렇듯, 학생들이 학부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대학에 오고서도 '고'처럼 성적에 의해 전공이 나눠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학부제 시행의 가장 큰 문제로 느끼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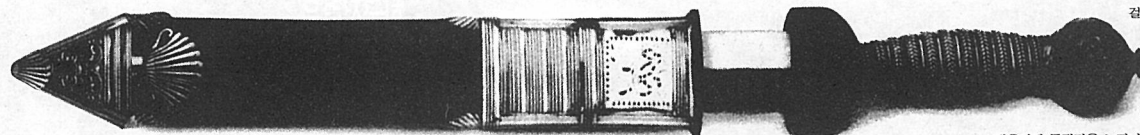
전공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성적에 따라 과목을 나누는 것이 35.2%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그 외 다른분야에서도 고른 분포를 보였다. (그래프 참조)

또, 학부제의 존재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0.9%가 학부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57%가 완전폐지 및 97학번에게도 전공선택권을 완전 보장하는 방안을 택했고, 47.1%가 존속하되 전공선택권을 완전보장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사랑과 사업의 동반자

로마인의 劍(검)이 10인치 짧은 이유



직접 써보고
바로 선택하십시오

LG O19 PCS는? •순소재까지 돌입한 음질이 깨끗합니다 •고속 주행에도 끊김없이 또렷합니다 •고품질 무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CS문의 모델과 색상이 다양합니다.

검이 짧을수록 한발 앞서 나가 싸우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차게 도전하라는 뜻입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제국의 힘은 로마인의 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적이 강할수록 검이 짧은 길이만큼 앞으로 나가 싸우는 용기 말입니다. 세계 최초 CDMA 기술 상용화에서부터 망 설계·설치·운용상의 풍부한 경험이 뒷받침된 최고 수준의 통신서비스에 이르기까지 LG O19 PCS가

같이 있는 길도 그랬습니다. 오직 맨몸으로 우리나라 통신기술의 황무지를 개척하겠다는 자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 좌절이 클수록 더욱 힘차게 부딪혔던 그런 경험이 있기에 O19 PCS는 오늘의

젊음에게 동진감을 느낍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점점 흐려지는 장래의 비전. 현실의 벽에 막혀 점점 멀어져가는 꿈들.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좌절과 맞대결하십시오. 좌절이야말로 젊음의 무궁무진. 지금 O19 PCS가 젊은 개척자들에게 마음의 박수를 보냅니다.

젊은 감성세력 -
LG O19 PCS

용인, '97 여성문화제' 폐막

학생참여 저조로 아쉬움 남아

용인배울터 총학생회는 지난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5일간 '97 여성문화제'를 '꽃차, 뒤집자, 놀자'를 모토로 학내 곳곳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늦은꽃소리' 상영 △ '정신대' 할머니, 애진스님과 토코스 △ '애로피고', '바운

드', '안토니아스란' 상영 △페미니즘에 관한 시각과 여성을 입장에서 본 포르노에 대한 강연 '포르노 뒤집어보기' △거리전에서는 '성문화와 여성', '모의대선', '일본군 위안부를 바란본다'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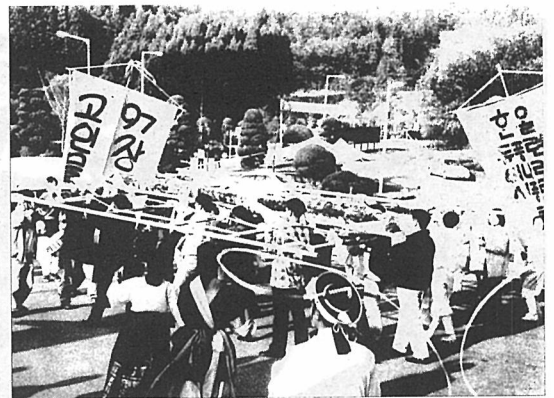
(서학·서반어 4)양은 "포스터를 눈에 띄게 많이 제작, 홍보했으나 노력한 만큼의 인지도가 없었다"며 "여러 혁신점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더 좋은 여성 문화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림사랑' 전시회 개최

'인간성 상실, 기계문명 비판' 주제로 열려

용인배울터 문화동에서 '그림사랑'은 지난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학생회관 1층에서 '인간성 상실, 기계문명 비판'이라는 주제의 만화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그림사랑'은 회원들 3개팀으로 나눠 인간성 상실에 대한 만화를 허무적이고 어둡게 표현하였으며 복합포토를 만들기 위한 '그림사랑' 회지를 판매하였다.



지난 10월 30일(목) 용인배울터 장승제 준비위원회에서는 학생회관 앞마당에서 약 3시간 동안 장승제를 진행하였다. 이 날 행사는 일제강점기, 불행 등 여러 다채로운 행사로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기동전환활동대리의 항의에 의해 빠른 시일안에 장승 문제 해부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용인, '고인 물 트기 장승제' 개최

기독교동원의 항의로 곧 공청회 열릴 듯

용인배울터 장승제 준비위원회는 지난 30일(목) 학생회관 앞에서 '고인물 트기 장승제'를 개최하였다.

있다. 또, 학생회관 앞 마당에서 장승제를 공연한 후 장승을 세우고 고사를 지냈으며 △ '경당'의 공연 △ 불꽃놀이 등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 행사를 기독교 동아리에서 강력히 반대해 장승제준비위원회와 마찰을 빚었으나 장승제위원회에서 일단 행사를 진행하고 빠른 시일안에 이에 대한 공청회를

서울 서어과, 학술제 '문화유감' 열려

'포스트모더니즘 비판' 주제

서울배울터 서반어과 사회과학회는 오늘(3일) 오후 6시 대학원 201호에서 학술제 '문화유감'을 개최한다. 10번째를 맞는 이번 학술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무척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서반어과 사회과학회 학술부장 임종우(2)군은 "바람직한 이론보다는 구체적인 예를 들기위해 노력했고,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장승, 다시 우뚝

'97 교직원 이수 신청서 접수

98. 2 졸업예정자 교원 자격증 신청도 접수

오는 10일(월)부터 21일(금)까지 '97학년도 교직원 이수신청서를 서울배울터는 사범대학 교학과, 용인 캠퍼스는 교무과에서 접수받는다. 이번 '97학년도 교직원 이수신청서 접수기간은 11월 21일까지다.

단, 교직원 이수신청자는 명단이 '교육부' 등재되어 졸업생에 교원자격증이 발급된다. 제출서류는 교직원 이수신청서 (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초본 1부이다.

'인도네시아 사회와 문화' 출간

양승윤 교수 저, 인도네시아에 대해 쉽게 설명

마인어과 양승윤 교수가 쓴 '인도네시아 사회와 문화'가 우리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 석좌교수인 윤지리영 및 박사가 편집한 '인도네시아 인종과 문화'를 번역, 재편집하면서 많은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인도네시아 개관, 자바, 발리, 수마트라, 술라웨시, 칼리만탄의 주요종족, 인도네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통일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종족들의 언어와 문화, 인구, 주거형태, 생계수단, 친목제도, 사회제도, 종교생활 및 개발과 현대화의 문제점을 서술하여 인도네시아의 사회와 문화를 더욱 쉽게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금주의 식단 (1997. 11. 3~11.7)

주 식단은 물론 수급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총무처 후원과-

일(월)	월(화)	수(수)	목(목)	금(금)
아침	소고기국밥 (W1,400) 숙주나물무침 김치	콩나물국밥 (W1,400) 생선조림 시금치무침 김치	짜장면 (W1,400) 아이스크림 김치	잔치국수 (W1,400) 감자채볶음 김치
점심	소고기계통탕 (W1,400) 아욱완자국 도라지오징어채 김치	순두부국 (W1,300) 숙주나물 각두기 김치	물고기수육국 (W1,300) 두부갈비국 콩나물무침 김치	콩나물찜 (W1,300) 우거지간장국 아욱완자 김치
점심	햄이더리스 (W1,200) 아욱완자국 상추묵자국 김치	햄스테이크 (W1,200) 크림소스 파슬리카레 각두기 김치	우육면 (W1,200) 콩나물국 아욱완자 김치	소고기도리야끼 (W1,400) 우거지완자국 도리야끼 김치
저녁	돼지고기장국 (W1,300) 콩고추장 김치	부추자국 (W1,300) 삼계탕 각두기 김치	돈육완자국 (W1,400) 아욱완자 오이소박 김치	닭가슴살 (W1,400) 참치구이 각두기 김치
명품 스테이크	무등	복합면	전복	복합면

마나보기 -용인배울터 총학생회 정(고희철)·부(임정민)후보를 만나

"합법이 안된다면 반합으로 원칙을 고수하겠다"



정후보는 6기 한총련 의장이 되겠다는 공약을 냈는데 학생운동에 대해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학우들이 많다. 학우들의 이러한 반응을 유감없이 새워내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다.

또한 지난 5기 한총련 출범식 이후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아래로 부터의 혁신에 대한 부분 이것을 해내기 위해 나서는 것이다.

대선에서 누가 승리 하든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은 그치지 않을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내년 학생운동의 상을 그린다면 그런 탄압이 있다고 해서 결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합법투쟁으로 안된다면 반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원칙을 고수할 것이다.

서울 포어과, '축구경기' 진행

과학성회로 단합하는 계기 마련

지난 31일(금) 서울배울터 포어과와 학생회는 '선우배 축구경기'를 진행하였다. 1.3학년과 2.4학년이 편을 짜서 치렀던 이번 경기에서 1.3학년은 10대7로 승리

를 거두었다. 이와 관련 포어과장과 학생회장 정재호(3)군은 "과외장 출마 당시에 선우배 경기를 돈독히 할수 있는 행사마련을 약속했었지만 지난번 야구시합의 반

응을 받았던 학우를 위하하고 학계에서 인터넷을 통한 역사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이종영 박사 (서울대)가이다.

한이 특강은 '하나님의 진상들 -서유럽 사회의 변천과 수도원운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터넷을 통한 중세수도원의 가상에

서울, 오늘(3일) '역사특강' 열려

인터넷 이용한 강연

오늘 오후 2시 대학원 107호에서 역사특강이 열린다. 우리학교 교양과정위원회가 준비한 이 특강은 '하나님의 진상들 -서유럽 사회의 변천과 수도원운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터넷을 통한 중세수도원의 가상에

영으로 인도해 준다.

세계경영, 다음 세대와의 약속입니다

대우가죽

꿈의 구장, 대우

세계는 넓고 기회는 많다
학생들은 단 3년밖에 오지 않는다는 기회이지만 준비하고 꿈을 키워가는 이들에게는 또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세계를 향해 꿈을 펼치기는 대우의 세계경영, 여려운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들어 가는 젊은 기회입니다.
대우가 있습니다



◀ 편집회의로 밤을 새는 화요일, 피곤하지만 원고마감이 3일이나 남아있기에 마음은 편하다

▼ 편집회의는 보통 새벽 3시쯤 끝나기 때문에 기자들도 학교 담을 넘는데 도사가 된지 오래다

외대학보의 월요일은 수업이 없는 날이다.

서울배움터 기자들은 수강신청을 할 때부터 월요일 수업은 땀다. 수업이 없어 여유만 만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월요일은 하루종일 용인배움터에서 부서회의를 하기 때문이다. 배포를 하고난 후 일주일을 시작하는 흥겨운 마음으로 스쿨버스를 타서 1시간 30분이란 탁 트이고 공기 좋은 용인배움터에 도착한다.

부서회의는 이번 주에 만들어서 다음주 월요일에 나온 학보의 아이템과 취재상황을 점검하고, 2주 뒤 학보에 실릴 아이들을 찾아내는 자리이다. 기발한 아이디어, 특종, 심도 있는 분석기사를 위해서 항상 기자들은 신문용 보고 전화를 걸고 자료를 찾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한다.

편집회의로 밤을 새는 화요일까지는 그래도 마음이 편하다. 원고마감이 3일이나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날 부서별로 회의한 내용은 문서로 만들어져 편집회의에 올라간다.

월요일에 나온 학보를 평가하고, 이번 주에 만들 학보의 아이들을 점검, 부서에서 올라온 2주 후의 아이들을 공유하고 전체적으로 조정한다. 그리고 일주일동안 기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고민을 하면서 사는지도 들어본다. 이 회의는 보통 새벽 3시쯤 끝나기 때문에 기자들은 학교담을 넘는데 도사가 된 지 오래다.

수요일, 목요일은 취재를 집중적으로 한다.

이 때 취재와 수업이 겹치지 않게 사전에 조율을 해야 한다. 요즘엔 PC통신에 자료와 기사거리들이 많이 퍼져 편재한 것이 사실이지만 독자들에게 생생한 보도를 하기 위해 꼭 발로 뛰어다니는 취재를 해야 한다.

금요일은 밤새도록 기사를 쓰는 날이다.

모기자는 목요일 밤이면 원고마감 걱정으로 잠이 안 오고 모기자는 금요일만 되면 학보사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글썽글썽할 정도로 원고마감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1차 원고마감은 자정 12시, 2차 원고마감은 새벽 6시이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떠들다가도 새벽 3시쯤이면 모두들 멍해져서 학보사내에는 자판을 두들기는 둔탁한 소리만이 들어온다. 기사를 완성해서 부장님께 올리면 곧 그 기사는 빨간펜 자국으로 도배가 된다. 주술구조가 안맞는 것, 문장이 너무 긴 것, 개요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취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고치고 보완하고 또 고치고 그러다 보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 동이 터 오른다.

남들은 상쾌하고 기분 좋은 토요일, 밤을 꼴딱 샌 기자들은 지쳐분한 물골로 조판소로 향한다.

조판소에서 기자들은 맥킨토시로 편집되어 축소판으로 인쇄되어 나온 종이를 쥐고 하루종일 편집을 고민하거나 오자를 보고 재목을 뽑는다.

원고마감이 늦게 되거나 청탁한 글이 제 때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에 조판은 일요일 새벽에 끝날 때도 있다.

이런 경우에 기자들은 이틀동안 밤을 새고 세수도 하지 못한 지쳐분한 모습으로 일요일 아침이나 집에 들어간다.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땀이 잠이 들기 때문에 기자들은 대부분 일요일에 대한 기억이 없다.

드디어 학보가 나오는 월요일, 기자들은 아침 일찍 학교에 나온다. 인쇄소에서 도착한 학보를 각 건물마다 배포하기 위해서이다. 깔끔하게 배포된 학보를 들고하는 학우들이 피드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자들의 큰 낙이다. 지난 일주일동안 쌓여온 피로를 딱 가시게 해 주기 때문이다.

▶ 레이아웃 그리고 오자보고 제목 뽑는 조판소 상쾌한 토요일 하루동안 조판소에서 학보제작의 마무리 작업을 한다



외대학보답게 사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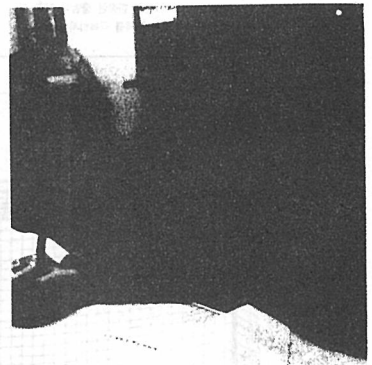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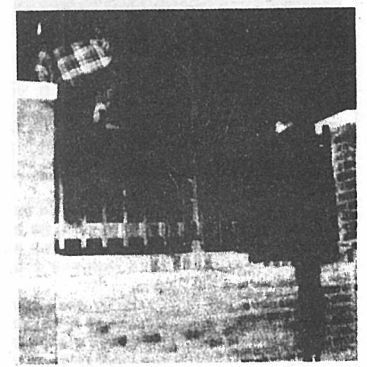
▶ 수첩에 열심히 적어가며 취재하는 모 기자. 취재원의 말을 동맹다 받아적는게 아니라 요약할 허거나 단어만 나열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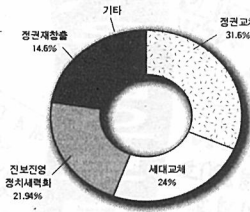
▼ 이틀동안 밤을 샌 모 기자. 잠시 쉬는 시간에 잠이 든 모습. 이 때 깨우면 다들 헛소리를 한다



▶ 원고지 다시 챙기며 컴퓨터 앞에 앉은 원고마감 이밤도 빛나는 새벽별. 내 조직 학보사에 청춘을 바치려다. 조판소 가기전에 원고를 막으려다...



대학생
대선익식조사 결과 - 16면



정권교체 요구 1위, 학생운동 '사회민주화' 공헌 73.5% 긍정,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이 전국의 70여개 대학 149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운동과 대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태일 후배들
조직을 만나다 - 17면



옷과 관련된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 산별노조를 만들었는데 '노동조합을 만들어달라'고 외쳤던 전태일 열사의 염원이 전국 단위에 조직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전태일의 후배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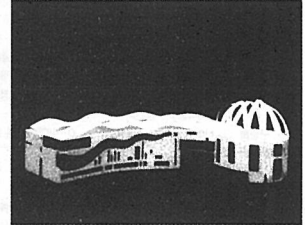
지방학생 어려움
언제까지 외면되는가 - 18면



지방학생은 방값에 허덕이고 대학당국은 등록금에 웃고 기숙사는 시설미비로 쓰러져 가는구나

학생회관을 설계했다

- 20면



서울배움터 학생들로 이제는 학생회관 내 소극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된다는데 영원히 설계로만의 희망으로 끝나는 불행이 없기를...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양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려주십시오

오늘 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종락

박노해의 '길 잃은 날의 지혜' 중에서

역사는 큰 강입니다.
외대학보는 역사의 강의 시련에 처했을 때
작은 진실부터 살려려 했습니다.
외대학보가 걸어온 청춘작필의 700걸음
한손에 펜을 들고
막혀있는 길을 열어나가는 작은 걸음이었습니다.
길 잃은 날의 지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외대학보가 되겠습니다.



외대학보 자령 700호

발행기념식 및 리셉션

일정 : 11월 3일(월) 오후 4시
장소 : 서울배움터 애경홀, 교수회관 식당

외대학보 동우회 총회

일정 : 11월 3일(월) 오후 6시
장소 : 교수회관 식당
참가 : 외대학보 출신 선배, 현역기자

인문 학술강연회

주제 : 언론
일정 : 추후공고
장소 : 서울 - 대강당 용인 - 자연대 강당

과 편집기자들과의 자리

대상 : 각 과, 단대 편집기자
일정 : 추후공고
문의 : 서울 - 961-4152, 4466
 용인 - 0335) 30-4112, 4580

사진전

일정 : 서울 - 10월 30일(목)~11월 3일(월)
 용인 - 11월 4일(화)~11월 7일(금)
장소 : 서울 - 학생식당
 용인 - 학생회관 근처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역사와 함께 하는 외대학보

지령 100호 ~ 600호

외대학보는 1955년 4월 11일 창간되었습니다. 이후 수 많은 시간 속에서도 민족자주 언론의 기치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1997년 올해 11월 3일자로 외대학보는 700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보에서는 100호마다 나온 기념호를 통해 외대학보의 변화과정, 당시 학내상황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0---1955년 12월 16일 지령 100호

제일 정치지

자금으로부터 -0년정인 단기 四二八八년 四월 ---의 「외대학보」가 창간되어 그동안 꾸준히 그 나이를 더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1백호를 맞는다.

예초에는 「타보트」로 四년에 걸친 것으로 발행된 것이 이제는 대관적 주기로 4년씩 발행하고 있어 다른 어떤 단과대학보다도 우선 그 수직의마에서 앞서고 있다. (중략)

그러나 「외대학보」 1백호까지의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면 그 자취가 평탄치만은 못했었다. 순수하여 할 대학신문이 주어진 조인 때문에 뒤흔들려야 했고 때로는 「지나친 상용,이란 누명을 못지나야만 하기도 했었다.

오늘 「외대학보」 지령 1백호를 맞으며 우리는 이것을 타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평탄치만은 못한 길을 밟아 대진해나갈 때 백만배 나이를 먹는 외대학보의 뒷걸음질에 힘입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축하해주고 싶은 뿐인 것이다. 말없이 흘러간 10년의 세월속에서 백만의 학보가 나온 것이다. 이제 「외대학보」는 발전을 위한 제일 정치지에 도달했다. 우리대학의 국제대학의 산 역사로서 우리 대학과 언제까지나 길을 같이한 「외대학보」인 것이다.

장하도! 「외대학보」! 장하도! 우리의 대학자 「외대학보」! 장하도! 백만의 연륜을 쌓아온 우리의 「외대학보」! 그앞길에 무궁한 발전 있오라. (세로쓰기 원문을 가로쓰기로만 바꾸고 표기법은 고치지 않습니다.)

1955년 12월에 지령 100호를 맞은 외대학보의 모습은 국한문혼용과 가로쓰기와 세로쓰기가 혼용된 4면짜리 신문이었다. 학내

의 단상을 주 내용으로 1면에 실렸으며 학생들은 시·소설 등의 문예글들이 다량과 함께 실렸다. 반면 사회·학술기획 등 기획 및 심층보도기사가 부족하던 때였다.

당시 1면 탐사기사 지령 100호의 의미를 돌아보는 사실이 실렸는데, 그 내용은 다소 감정적이고 웅변조였지만 대학신문에 대한 위상을 다시한번 짚어 주는 내용이었다. 또한 2면에 「대학신문의 실재와 그 사회적」이라는 논단을 마련하여 조선일보 편집장, 중앙일보 편집장, 한글학회 이사장 겸 우리대학 출판부장의 투고글이 실렸다. 이 논단에서는 대학신문의 사회적 위상을 '쉬운 말과 글로 독자들을 넓히고 대학의 공경으로 아카데미즘을 추구하며 사회의 불의를 고발해야 하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0---1975년 3월 1일 지령 200호

유니트

- ▲ 새학기 등록금 앞날에 경중
- ▲ 대학은 사회의 거점(據點), 문화가슴에도 출산부
- ▲ 동맹(冬盟)과 함께가는 캠퍼스
- ▲ 한계를 발을 가다린 나목(柵木)의 생리

1975년 3월 1일 개간호 외대학보는 동시 지령 200호였다. 당시 4면발행 체제였지만 200호 발행기념으로 8면으로 증편하였으며, 또한 특집으로 「인간자유에의 본질적 접근」, 「혼돈시대의 창년상」, 「외대문화의 수용태도」라는 당시 시대에 맞는 주제의 전국 대학생 논문현상모집을 펼치고 당선작을 3면에 실기도 했다. 위에 실린 「유니트」라는 칼럼은 현재 「크로니클」이라는 외대보 칼럼의 전신으로 학내외의 사건을 짧은 글로 재치있게 쓰는 칼럼이었다.

0---1980년 5월 2일 지령 300호

노사분규 누구의 문제인가 노동운동의 최근 실태와 그 현황

10·26사태 이후 붕괴 터지듯이 일어났던 민주화의 바람은 교집합되어온 노사관계의 현장에도 파급되기 시작했다. 70년대 초반에 가해졌던 정치적 첩보와 이에 뒷받침되어온 고도경제성장정책이 가져다준 슬픈 부산물이 오늘에 이르러 극단적 형태로 재조명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실은 오랫동안 끌어왔던 상처가 마침내

는 터져버릴 수 밖에 없다는 당위론으로 귀결되고 있다. (중략) 금기시 되어온 노동운동이 우리의 경우는 얼마만큼 열악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과 그동안의 상황이 부어왔던 약조장들이 근로자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이었던가 하는 검증은 만시지탄의 느낌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본보기동화제정은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동일방직근로자 해고사건의 현장과 폭동으로까지 번진 사복사건의 알려지지 않은 이면을 추적하고 노사관계의 상징처럼 되어온 평화시장 피복근로자 문제가 최근에 일어나게된 진위를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각 공단내에서 일고 있는 노동운동의 양태를 보고함으로써 이것이 누구의 문제인가하는 명확한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령 300호 외대학보의 1면은 독언과 강경론 교수나 그런 외대의 모습, 외대학보 등문이자 당시 중앙일보 편집부국장인 손기상씨의 기사가, 그리고 민중대 교수의 축시로 채워져 있다. 또한 4면발행체제에서 12면으로 발행되는 등 300호라는 목적인 숫자답게 그 한식부터 탄탄하게 준비되었다. 내용면에서는 학내외뿐만 아니라 각 부분별로 다양한 특집을 마련하였고 소수가 김홍신씨로부터 창간 25주년 기념소설을 받아 실기도 하였다. 또한 '본보 TOP기사를 통해 본 외대, 외대인 그 열국의 발자취'라는 기획을 마련, 개교시절부터 당시까지 사회정치적 격변기에 외대인이었고 행동하는 지성으로 살고자 했던 외대인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당시 10면에는 노동현장르포 기사를 실어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의 보장과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모색하였다. 위의 글은 이 르포기사의 편집자주로 기사의 방향을 말하고 있다.

0---1984년 10월 26일 지령 400호

용인 캠퍼스 학내문제 시정 요구 시위 26일까지 계속 -수업거부 결의 25일 철야농성

용인캠퍼스 민주위헌 「학내문제 대책위원회」는 25일(목) 오전 11시 학내문제 전면에 관한 전체학생총회를 개최하고 영어과 등 8개과가 참가한 가운데 본관식당에서 농성을 벌였다. 민주위는 때로한 유인물에서 마스터클래스를 하구이며, 학교측의 「학원소요가 많다는 이유로 중과중

원이 안된 것 같다.는 비공식발언은 학원자들에 대한 침묵이라고 지적하고 학교측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이론과 용인의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차별, 도서관, 학생회와 건립과 교통·식당문제, 재단공개등 학교재반문제에 대한 학교측의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오후 4시경 학생들은 1천명으로 늘어났고 5시에 서명완교차점과 점의 담판은 가졌다. (후략)

1984년 10월 26일 나 외대학보 400호는 16면으로 발행되었다. 여학구 등문시인의 기법시와 화해보, 탄광과 농촌르포기사가 특집으로 실렸다. 당시 교내의 총학생회 부활운동과 함께 서울과 용인배움터간의 학생행정, 학생자치에 대한 시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심층보도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위에 실린 글은 대학보도면에 실린 학생자치 및 학사행정에 관한 학생시위위로 당시 학원자료를 엮어 열람하는 교내 분위기를 알 수 있다.

0---1988년 10월 4일 지령 500호

1988년 지령 500호를 맞은 외대학보는 20면을 발행하였다. 많은 면수에 다양한 기획을 다뤘는데 10면에 「외대생은 이렇게 생각한 다」라는 외대생의 생활·가치관·대사회관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기사를 실었다. 내용을 보면 외대생들은 교육환경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고 특히 장학제도와 교직원들의 불친절을 지적하였다. 대정부·사회관은 정부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빈부격차와 언론정책이 심각하다고 나타났다. 또 사회민주주의의 해결방안은 언론의 자유보장(35.9%), 국민의 정치의식 향상(23.7%), 군의 정치적 독립(9%), 빈부격차해소(8.1%)등의 순으로 꼽고 있다. 외대학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대체로 만족이 72.8%를 나타냈으며 또한 학술적인 기사의 보강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외대생의 의식구조를 분석한 기사 외에도 좌우이념논쟁에 대한 좌담회를 마련하였다. 당시 87년 이후로서 정치사회적으로 높은 각성이 있었던 상태였기에 학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 노동운동의 활성화, 통일운동, 사회주의이론 등 많은 기사가 정치사회적인 여러면의들을 주제로

서기 1965년
12월 16일 발행
제 100호

학원 자유

1975년
3월 1일 발행
지령 200호
기념호

제 300호
<추간>
1980년 5월 2일
매주 금요일 발행
(1주 1면 - 5면)
정간 1985년 4월 1일

제 400호
<추간>
1984년 10월 26일
매주 금요일 발행
정간 1985년 4월 1일

제 600호
<추간>
1997년 11월 3일
매주 금요일 발행
(1주 1면 - 5면)
정간 1998년 4월 1일

동북지왕은 새벽, 온물이 부부된 학다시 깨어나라

백지대자보

주제: 「외대학보」에 전하고 싶은 말 (제 600호를 맞아)

편의 함은 그 무엇보다 강하다.

-92 아파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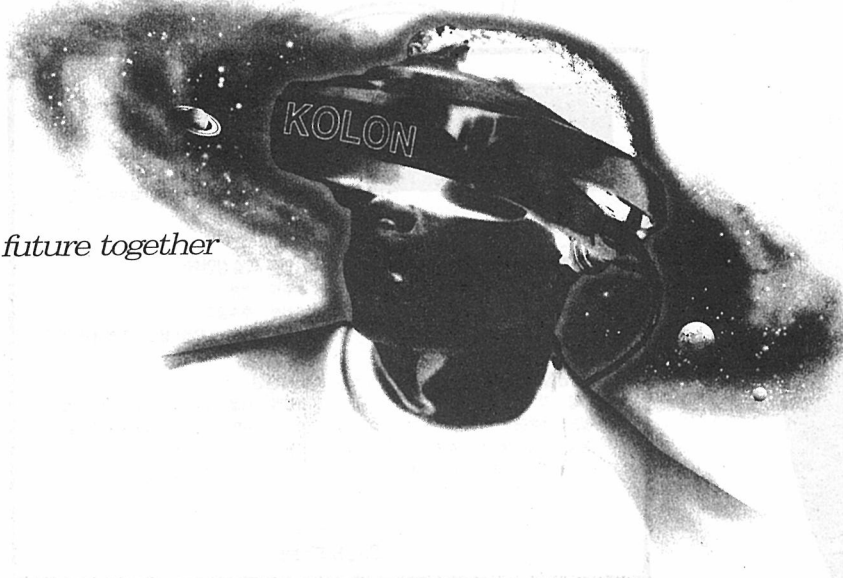
정론지침! 그 대역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B 외갈수-

559명의 우리들은 진정한 외대의 자랑만내 육백호를 여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날아줘. -언니·형·오빠 일동-

외대학보의 600호는 16면으로 4면이 증편되어 발행되었다. 지금과 가장 비슷한 면 구성과 편집형태를 보이고 있다. 당시 학생운동조직이 전대하면서 한층으로 넘어가는 시기였기에 「정대행」의 발전적 조

The future together



보는 눈이 다르다면
미래가 달라진다.

보다 멀리 볼 줄 아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직 최고를 향하여 변화와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역사를 바탕으로, 코요롱은 더 큰 도약을 위해 이미 파천 신사욕을 완공하였고, 첨단 섬유공학, 정보통신, 유통, 레저 등 미래산업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진보적인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 그 곳에 코요롱이 있습니다.



학군단 들여다보기



본보는 지면 700호를 맞아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이 대학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재조명해보자 287면(서울 142, 용인 145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밖에 학군단의 역사적 배경, 학군단의 생활, 학군단 관계자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설문조사의 경우 준비부족으로 인해 많은 항목을 신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편집자

학군단이 무엇인가 군인 아닌 군인교육 받는 학생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은 '학생군사교육 실시령'에 근거, 학교의 요구에 의해 위탁된 군사교육 시설이다. 학군단의 무기들은 총장의 관리하에 있고, ROTC는 군인이 되기 위해 교육 받는 학생이지 군인신분은 아니다.

학군단후보생이 되려면 입학실적과 1학년 성적 우수하며, 2학년 성적은 C이상, 신체 및 정신 건강, 확실한 신분 등의 요건을 갖추고 2학년 초에 지원하면 된다.

교육은 3학년 때부터 일주일에 두 번(사요일은 화·토요일에, 용인은 목·토요일에)받는다. 토요일엔 제식훈련과 총검술 등 4시간동안 서울매일터에서 군사훈련을 받는다. 화요일이나 목요일에는 지휘관 정신교육 등의 일반학, 총과 관련한 화기학, 전술학 등 실내강의를 2시간씩 받는다. 다른 요일에는 체육을 하지 않고도 되고, 수업도 일반학생처럼 들어간다.

현재 서울·용인 합쳐서 150명이 조금 넘는 수의 후보생들은 3학년에서 4학년, 4학년에서 일관 사이에 통과시험을 치르고나 뒤 소위로 28개월간 군복무 하게 된다.

후보생으로 있는 동안 국가로부터 학비 장학금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학비를 면제받은 기간만큼 군복무가 연장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따지는 않다.

일반사병보다 복무기간도 길고 대학2년을 무지향에도 불구하고 매년 학군단 지원자 수가 꾸준한 이유는 있다. 일단은 장교라는 경험을 통해 지도력을 기를 수 있고 군복무 기간동안 월급도 많다는 점,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투철한(?) 국가관, 지도력 등을 갖추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졸업전에 대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일반학생보다 높다는 점 등이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군단의 변천사

학내 군사교육·문화에 대한 비판

"지난 3월 6일 오후 3시 본대학 ROTC 연병장에서는 제 119학도 군사훈련단 창단식이 후보생 6백명과 내외귀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964년 당시 ROTC 창단식을 묘사한 외대학보 기사다. 국방부는 1961년 4월부터 종합대학교의 재학생 가운데 희망자에게 소정의 훈련을 받게 한 후 정정시위를 통과하면 소위로 임관시키는 ROTC(학군사관후보생)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단과대학이었으므로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1964년 학생군사훈련단(71년 이후 학생군사교육단으로 개칭)이 창단되었다(외대40년사). 반면, 학도호국단은 1949년 4월 당시 순수한 안보적 차원에서 창단되었다가 5.16 이후 다시 총학생회가 발족되었으나 75년 6월 25일 문교부의 '학도호국단 시행령 및 동 시행세칙'의 발표로 같은해 7월 총학생회가 해체됨으로써 호국단이 부활하게 된다. 그후로 ROTC와 학도호국단의 공식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75년까지 유지돼 오던 기존의 ROTC생들이 75년 6월 문교부의 '학도호국단 시행령'에 따라 대부분 학도호국단으로 편입하게 된 것이다(외대학보 제206호). 그러던 호국단이 84년 이후 총학생회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ROTC체계로 전환했고 이것이 바로 ROTC와 학도호국단의 관계다. 64년 출범한 호국단은 학생생활을 총괄하는 7개의 부서가 유기적으로 작용해 학생생활을 규제했고, 학도호국단의 출범과 함께 부활한 '동리리 활동' 등 그 활동이 호국단의 이념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되었다. 그야말로 군부의 이념을 대변하는 매개체 역할을 담당했던 시기다.

그러나 간접선거를 통해 출범한 호국단의 한계는 결국 84년 '총학생회 부활문제'를 놓고 호국단과 의문수(사대민주화추진위원회)간의 대립으로 발전한다. 호국단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호국단은 발전적 해체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한편에서는 84년 부활한 총학생회가 불합단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자치기구를 호국단과 병존시키는 선에서 학생회를 인정하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84년 총학생회 선거로 총학생회가 출범을 하면서 호국단의 역할은 순수한 학생군사교육단의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ROTC가 창설된 64년 이후부터 끊이지 않고 학내 군사교육의 필요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현실적인 불만사항은(원전부장님) 상태로 받는 군사훈련, 총성검열 등에 대한 거부감 등) 차지하고라도 자유로운 사고와 논쟁으로 사회 지식을 이끌어내야 할 대학에 군대의 상명하달식 구조가 유입되고 그것이 일상화된다면 실로 위험하다는 지적에서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 96년에는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서 ROTC군사교육을 배움의 기회가 아닌 제 3의 공간에서 실시할 것과 배움터 내에서 군복무를 금지하는 법안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대학총장들마저 ROTC에 대한 학내 여론 악화를 감지했던 것이다. 이밖에 ROTC 선·후배 사이에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일차' 등의 장제나 폭행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뉴스에 실릴 정도로 방송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학내 군사교육에 대한 토하나의 반발 움직임 일기도 한다. 그들의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으로만 판단하기엔 그 지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만나보기-학군단 교수부장

편견을 깨뜨릴 때

학군단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육·해·공군 중 특히 육군에 초급장교, 장교의 수요가 많다(연간 400여명). 장교양성을 사관학교에서 맡고있지만 다 말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소위계급이 많이 필요하대 비해 계급이 올라갈수록 피라미드형이 되어 수요가 적어지고 따라서 전급제상의 수도 줄어들므로 소위계급은 단기 지원이라 할 수 있다. 2년 4개월 간만 복무하고 재대학 장교의 양성을 위해 양상기관을 따로 세운다 해도 무지에 상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위탁하는 것이다.

군사훈련을 해 학내에서 하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강의를 제외한 군사훈련이라든가 인군 군부대 등 학외공간에서 하는건 어떤가
그렇게 되면 일단 시간소요가 많아진다. 후보생들이 군사훈련단 받는 것이 아니므로 학사 일정애 예외가 생길 것이고, 또 예산소요도 많아질 것이다.

현재 군사훈련은 토요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학사일정 문제나 시간소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나
국방부의 교육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므로 내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어렵다. 정부차원에서 전반적인 법이 바뀌기만 하면 가능한 일이지 하겠지만 후보생들이 이용할 바나 식사제공 등은 대학차원에서 제공되어 할 것이다.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러면 일반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거부감이 해결될 방법은 없는가
물론 총이나 군복에 대한 거부감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다. 첫째, 내 경험으로는 70년대까지만 해도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 거부감을 갖는 학생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군사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거부감이 확산되게 된 것이다. 이제는 그런 부정적 인식을 바꿀때가 됐다고 본다. 국방은 주권수호의 기본적인 수단이지 않은가?
둘째, 외대의 공간부족 문제는 고질적 문제다. 학생들 눈에 덜 띄는 곳에서 훈련을 하면 불만이 덜 할 것이다. 이해를 바란다.

자들을 기본으로 하는 대학사회에서 상하수직적 명령체계가 바뀐 군사문화로 어떻게 조율시켜나가고 있는가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학내에서도 분명 위계질서가 있다. 위치에 맞는 권한도 있고, 군인이 경직돼 있다고 하는데 군인이 군기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잣대로 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학생들도 학군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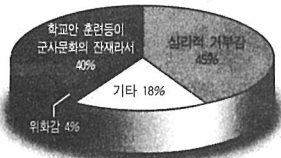


교수부장 박종석 중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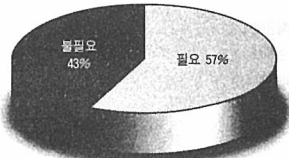
1) 학군단으로 느끼는 작·간접적 불편함이 있다면 어느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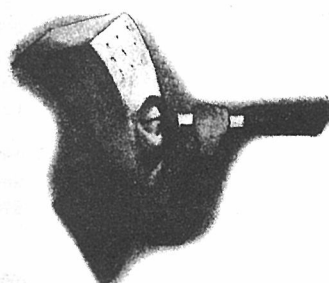
2) 구체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어떤 것입니까



3) 대학내에서 학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한 번 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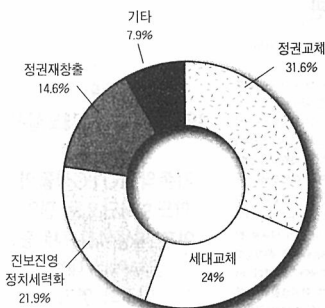
후보로 나온다고 무조건 찍지 마십시오
누가 나온 상관없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년 왕산배움터를 책임지려고 하는지
꿈꿀이 하나이나 살펴보십시오
언론협회의가 그 자리를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성원 드로회

- 일시 : 11월 5일(수) 5시
- 장소 : 공대 강의실 207호
- 후원 : 총학생회장 후보:교회원(인문·언어4)
- 후원 : 부총학생회장 후보:임정민(경산·무역4)
- 사회 : 이재석 언론협의회 회장
- 매 : 외대학보사 명예진 대학부 차장
- ARQUS 감성실 교육부장
- 왕산 FBS 황미희 제작부장
- 교지 김동욱 자료조사부장

아니만큼 위해 전언하는 9대 언론인협의회

정권교체 31.6%, 김대중 지지 28.6% 학생운동 '사회민주화' 공헌했다 73.5%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의미)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 전국 700여 대학, 1456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운동과 대선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대학생들의 의견을 비교적 과학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신뢰도 95%기준, 오차한계 2.5%, 조사기간 97년 10월, 조사장소 각 대학 도서관, 교육부 통계수치에 의거해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 재주지정 제외).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대학생들의 정치의식을 비교적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 결과에는 우리 학교 학생 50명의 답변도 포함되어 있다. 편집자

학생들은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에서 사회민주화에 대한 공헌정도에 대해 73.5%, 통일운동 30.2%, 학내민주화운동 53.8%가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답변했다. 통계지에 따르면, 학생운동에 대한 대학생들의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밝혀온 기존 언론보도와는 달리, 학생들은 학생운동이 그간 평가받아온 정통적인 민주화투쟁 등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대학에 빚박힌 학생운동 변화에 대한 요구와 논란은 한층전에 대한 어떠한 문제의식을 그 근간에 깔고 있는 것일까. 설문조사에서는 한층전에 촉각수단을 포기할 것(30.2%)과 학생회 및 한층전 내부구조의 민주화(24.9%)를 가장 높게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층전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요구는 한층전과 학생운동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비판이다"라며 "이들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은 앞으로 학생회 일관성의 중요한 숙제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통계지는 향후 학생운동의 중심사업에 대해 학내민주화 및 학생복지에 대한 부분이 사회민주화에 대한 영역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지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생들에 대한 경험담 관련 보장을 요구하는 측면과 대학생들의 정치적참여가 이전같지 않다는 주장이다.

학내민주화 및 복지문제에 사회개혁과 등

떨어져서는 본질적으로 풀릴 수 없다는 한층전의 입장과 자기 대학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사회개혁부문의 연대활동이나 관계사업을 등한시하고 있는 비운동권학생회와의 차별성이 일반대학생들에게 어떻게 인식될 것이냐는 이번 학생회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대학생들의 새로운 정권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교체에 이번 선거의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31.6%로 가장 높았으며, 세대교체(24%),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21.9%)가 비등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78%의 학생들이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무엇보다 김영삼정권에 대한 강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다.

김영삼정부의 연성이미지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서 문민독재(24%)를 적은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그의 비리·부실·무능(13.8%), 부정부패(7.8%), 탄압·폭력(5.9%)이 그다음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개, 바보' (5.7%) 등의 감정적 혐오감을 드러내는 답변도 눈에 띄었다.

한편 대학생들이 후보들에게 가지는 견해가 일반국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대사회가 가지는 진보진영으로서의 기대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게끔 한다.

김대중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이 28.6%로 일반여론조사에 비해 5-10% 가량 낮으나 역시나 최고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민족민주운동정에서 출발한 김영삼후보에 대

해서는 9.3%정도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92년 백기완후보가 대학생들에게 30%이상의 지지를 받은 것에 비해서 97년의 대학생들은 '우리사회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대통령'에서 김대중 후보가 29.2%인데 반해 김영삼후보는 12%의 지지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정치의식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만만치 않게 보인다. 그러나 국민후보가 대학생들 사이에서 대안세력으로는 물론이고 그 인지도조차 높지 못한 것은 학생들의 정치의식문제만으로 해명하기는 한계가 있다.

민족민주운동정권의 선거대책본부에서 '국민승리21'과 '국민후보'가 얼마나 대안세력에 공감대를 얻을 것인가는 앞으로도 김영삼후보진영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학생들은 차기정권의 최대과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정치개혁(31.2%)이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개혁(25%), 남북통일(13.8%), 부정부패척결(9.3%)이 선정되었다.

또한 대선후보를 선택할 때 정책공약(42.2%)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가장 많이 하였다.

한편, 전체 통계수치에서 학내에 올라갈수록 학생운동,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김영삼후보지지에 대한 긍정적응답이 높았다.

허윤숙 기자

대학가 개인주의 팽배(?)

투사는 떠나고 개인만 남아... 얼얼한 조선일보에 실린 대학관련 기사의 제목이다.

대학생들은 디자인 사회·정치적 문제에 관심이 없다.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자리잡아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취업공부와 이력연수에 열중한 다.

또한 대학을 학문탐구보다는 전문인 양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한상을 나열한 이 기사는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대학생들도 변하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진정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학생들의 일 반적인 사고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지난달 29, 30일 이틀 동안 학생수, 성별, 학년의 비율에 따라 서울배출 학생 210명, 울진배출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편집자

그리고 대학사회에서 공동체문화가 흔들리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32.9%가 시대의 조류가 개별화, 개인주의화인 만큼 어쩔 수 없다고 답한 반면, 위기감을 느끼고 다시 복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60.3%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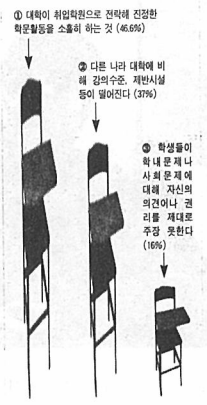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 과연 그들은 학생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 학생들은 53.5%가 긍정적, 24.2%가 부정적, 20%가 별로 관심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긍정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사회의 올바른 발전을 밀어붙여 준다, 열심히 한다, 모두가 느끼는 문제해에 대한 자산을 형성하면서 실천한다. 방법이 어쨌든 남을 위해서가 등이 있었다.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학생들은 맨날 수업 태도만 좋다고만 답변하고 있다. 긍정하는 것은 식의 발전, 아무리 운동해도 이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 폭력적이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끝으로 학생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학생들이 주로 지적한 시대상황변화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질문해보았다.

15%의 학생들이 우리 사회가 양적인 성장을 재하고 경제적 정의 실현, 정치적 민주화, 남북관계, 사회복지 등의 질적인 측면에서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반면, 80%가 넘는 학생들이 변하지 않았다고 답해 여전히 대학생들이 사회에 대한 비판적, 진보적 인식의 끈을 놓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서윤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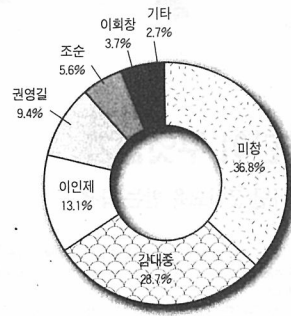


<현재 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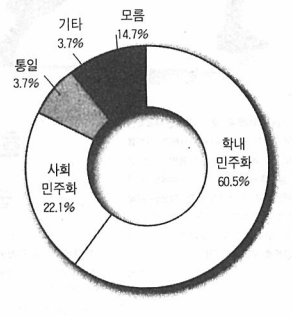
현재 대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상대로 취업문제(72.9%)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대학이 취업을 위한 학원으로 전락해 본래의 목적인 학문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46.6%)을 현재 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다른 나라 대학에 비해 강의의 수준이나 학생들의 지적 능력, 재학생들이 열악하다(37%), 학생들이 학내문제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다(16%)도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이 가지는 진리탐구, 참된 지성인 양성 등의 본래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은 또한 한시기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이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에 대한 질문의 답변에서도 드러난다. 진리를 탐구하고 학문을 연마하며 우리 사회의 모순을 올바르게 지적하고 그 시정을 위해 힘쓰는 것이라고 답한 학생들이 62.3%로 과반수를 훨씬 넘었다.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



<학생운동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正道경영·초우량LG

다시 받은 학생증

졸업후 2,3년 월급쟁이로 살다보면, 자기개발은 고사하고 학창시절 꿈과 개성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가슴에 남은 건 회의뿐이죠.

하지만 LG에서는 다릅니다.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이고, 전문 경영자를 키우는 HPL 과정과 글로벌 MBA 과정, 해외 석·박사 과정 등 수준 높은 인재육성 제도를 통해 당신을 큰 인재로 만들어 드립니다. 또한 국내 기업 최초로 실시하는 사내 벤처(Venture)제도를 통해 사업가의 꿈도 실현시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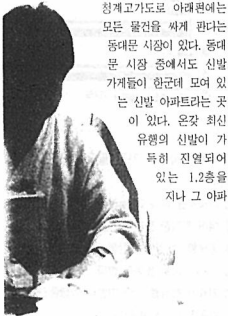
어때요? LG는 대학원에서 월급까지 받으며 하고 싶은 공부와 자기개발을 마음껏 하는 건!



LG /인재개발위원회
http://www.lg.co.kr

“근거기증법을 준수하라”며 산책해 간 전태일 열사의 죽음 이후 27년이 흘렀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 이후 전민적 노동운동이 대두하여 이제는 양적·정적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시사로서의 전태일 자신이 자신의 근로현장에서 노동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섬유업계 노조의 변인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다른 산별노조에 비해 발전이 더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9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민생노동위원회가 전태일 노조에게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보에서는 창제피복노조를 찾아 보았다. 창제피복노조는 전태일 열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열망을 기려 그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이 창제에 만든 것이다. 올해로 27년이 되는 이 노조는 사회적 의류제조업 노동조합(총)의 구성체 역할을 하고 있다.

“내가 바쁜 만큼 우리 노조가 발전하겠죠”



창제고고도로 아래편에는 모든 물건을 싸게 판다는 문 시창 중에서도 신발 가게들이 한군데 모여 있는 신발 아파트라는 곳이 있다. 온갖 최신 유행의 신발이 가득히 진열되어 있는 1.2층을 지나 그 아래

트와 가파른 계단을 타고 4층에 가면 복도 끝 벽에 ‘노동조합’이란 깃발을 든 사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동그하게 벌이고 있는 예쁜 벽화가 그려져 있다. 그 앞에는 구두, 운동화, 슬리퍼 등의 신발 여러 쉼터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이곳이 창제피복 노동조합 사무실이다. 안으로 들어간 좌식 타자가 있는 마루가 보이고 왼쪽으로는 너른 방이 있어 그 안에서 각종 ‘교실’이 열린다.

마침 함 대학생이 과학생물이 함께 일을 똑같은 버를 맞추기 위해 사무실에 찾아와 있었다. “모자리는 가격이 이렇게 오랐으면 이런 것이 있고...” 김정호(32) 노동 위원장은 설명을 해주며 전본을 보여 주고 있다. 창제피복 노조에서는 노조 활동에 필수적인 재정적 요건이 취약해서 노조의 대부분이 옷을 만드는 일을 이용해 지난 3월 ‘이스트리’라는 이름을 달고 단체 옷 주문을 받기로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옷 주문을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스트리의 설립 의의를 꼭 설명해 준다. 단순한 상업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 월급이 한 달 35만원에서 4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활동비로 쓰면 아내에게 가져갈 줄 돈이 거의 없죠”라며 김 위원장이 열정을 밝히며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창제피복 노조는 서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노조라서 산별 노조와는 다르게 노조활동비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조합비 수거가 쉽다.

지역 노조와 노조원 관리의 어려움 자연히 많은 상근조직원들이 있어야 하나 조직원들의 상근비와 월급을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조직 확대와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홍보가 되지 않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와 도움을 받아 고려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을 하기도 했다. “적자는 면했지만 원할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는 최소한 3,000만원의 물량을 공장에서 물려야 하는데 지금은 1,000만원 정도에서 아직까지는 재정확보 수준은 되지 않죠”라고 설명한다.

오후가 되자 위원장은 의을 준비를 한다. 아까는 후배가 노조입기 1년을 끝내면서 이제 노조원을 뽑으려 하고 있어 그의 고민을 풀어 주기 위해서다.

동대문 근처의 한 커피숍에서 그 후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하는 일에 한계를 느꼈다. 계속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힘들지. 평생 우리 일할 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자,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

물은 사이좋게 돈을 모아 커피값을 내고 30분 동안의 짧은 대화를 마친다. “그 친구는 문화부 장관대 문화학교에서 하는 중들이나 노래를 배우려는 수강생이 갈수록 줄어들어 마음 아파합니다. 노동자들이 여가 시간을 거의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거나 술을 마시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었어요.” 반면 병체 기술을 가르치는 패턴학교는 날이 갈수록 반응이 좋다고 한다. 노동자가 기술을 배워 기술이 늘면 ‘몸값’이 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노조에서 하는 활동 중 여러 가지 주제로 여는 학교와 등산·축구 모임은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공장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공장 위치 파악과 그 단원의 사업장과 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하는 정보원이 되기 도 한다. 그로다 가내 수공업과 4인 이하의 공장 등 소규모 공장이 서울 지역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은 정말 힘든 작업이라고 한다.

따라서 미션을 하는 의류제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그 동안의 공장들을 파악해 통계로 집작할 뿐이다. 작년에는 서울대 사회학과 과에 지원요청해서 학생들과 함께 서울 지도를 갖고 다니면서 공장의 위치를 일일이 표시하기도 했다.

위원장은 후배와의 얘기를 끝내고 곧바로 마포로 향한다. 마포의 한 방안에 있는 ‘국민대 21’의 사무실에 가기 위해서이다. 그 곳에서 노동자 정치실현단에 대한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사실 정치실현단에 대한 얘기가 공군하기보다는 제가 서울의류노조(전)의 중동부 의장으로서 북부와 남부의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곳 노동자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소나기였다. 비를 피하며 회의 시간에 늦을까봐 급히 건물로 들어갔다. 사무실의 사람들은 한달에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대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회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위원장은 그 동안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창제피복노조와 관련된 일을 상의한다. 회의가 마쳐졌다고 한다. 지난 번 회를 열어 11월 2일에 있을 ‘전태일 분신 27주기추도식’ 행사를 치를 준비하고 있는 지 노조 사무실에 전화를 한다. “오전 10시에 출근하는데 회의하고 여러 가지 노조 사업에 관련된 자료 정리하고, 서의의해서 만드는 소식지에 기사 쓰고 사람들 만나서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 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아, 그날은 회의 몇 번하고 뭐 했구나라는 정리가 되죠”

요즘은 지난 9월에 결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에 관련된 일을 하느라 더 바쁘다. 서울지역의 서울지역의류제조업 노동조합 건설의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단위의 산별 노조가 생겨서 앞으로 의류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기대가 많다. 실을 만드는 노동자, 원단을 짜는 제직노동자, 원단에 열착을 하는 열착노동자, 의류제조업을 하는 봉제노동자, 옷을 판매하는 영업유동노동자가 하나의 산별 노조 바탕 위에 모이기 때문이다.

김위원장은 88년 노조에 들어와 이제 활동한 지 10년이 거의 다 되어간다. 그 동안 정권의 노조탄압으로 감옥도 갔다고 힘든 적도 많았다. 현장에서 부딪힌 일이나 근로조건 개선에 걸린 문제를 발견하는 뒤돌아 볼 시간도 없이 할 새일이 달려들었다.

“이스트리”가 잘 되면 좋겠어요. 꼭 있어야 할 노조가 돈 때문에 구애받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김 위원장의 가장 자부스러운 바램이다.

허문숙 기자

만 오천 의류 노동자의 희망 민주섬유연맹

지난 9월 3일 대구지역에 있는 각종 노동조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창립 기념대회 가 97명의 대의원과 200여명의 조합원 및 각계 인사들의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날 창립 대의원회의를 끝내고 임원 및 전 대의원들은 ‘고용불안, 갑작적인 임금동결, 단체협상거약기도 등 섬유노동자에게 가해지는 탄압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투쟁결의문을 채택하였다.

1994년 섬유업계의 민주노조는 전국단위 ‘전국섬유업종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를 결성하여 전국의 섬유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또는 어용의 노동조합을 민주노조로 변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회의에 참여한 민주노조는 서울지역에 창제노조, 두원노조, 울티노 노조이고 대구지역에서는 태원문노조, 평마섬유노조, 열착공단의 노조, 참살섬유노조 등이었다. 또 울산지역에서 태관산업연합회, 호성 T&C노조가 참여했다. 이 노력의 결과로

작년 10월 ‘전국섬유업종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를 ‘민주섬유연맹 추진위’로 발전시켰다. ‘민주섬유연맹 추진위’는 민주섬유연맹을 올해 9월에 설립할 것을 목표로 조직확대사업과 당면한 노조탄압 대의원회의를 끝내고 임원 및 전 대의원들은 ‘고용불안, 갑작적인 임금동결, 단체협상거약기도 등 섬유노동자에게 가해지는 탄압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투쟁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민주섬유연맹 추진위’는 한국노총 섬유연맹에서 이 2년 전에 탈퇴한 한 ‘화합섬유부회(코오, 동국합성 등)’으로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 섬유연맹 건설에 동참하자는 제안을 했다. 제안이 긍정적 섬유연맹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또는 어용의 노동조합을 민주노조로 변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회의에 참여한 민주노조는 서울지역에 창제노조, 두원노조, 울티노 노조이고 대구지역에서는 태원문노조, 평마섬유노조, 열착공단의 노조, 참살섬유노조 등이었다. 또 울산지역에서 태관산업연합회, 호성 T&C노조가 참여했다. 이 노력의 결과로



88년 창제피복노조의 50여명이 합법성을 쟁취하기 위해 70여일 동안 농성을 벌였다.

비둘기철판

이문벌

■ 알립니다.

· 국민승리 21 학생 추진 위원회 ‘희망 21’ 외대 준비 모임이 방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열여섯은 희망의 21세기에 동참하길 분을 기다립니다.
발족일: 11월 5일 (수)
문의: 961-4546 <한우리>

· 우정 향상 프로그램 자기를 표현하는 효과적인 대화법과 듣기 방법에 대한 강의와 실습을 합니다.
매: 11월 6일 ~ 12월 4일 (총 5회) 매주 목요일 3시부터 100분간
최초일: 11월 6일 (목) 늦은 3시
곳: 학생 생활 상담 연구소(학생동 2층)

- 97년 외대중동 카니발
매: 11월 15일 (토)
곳: 상계리제
- 제2회 터어키어와 노래제 어울림 정기공연 ‘그것이 알고싶다’
매: 11월 3일 (월) 늦은 5시 30분
곳: 대학원 소강당 <터울림>
- 제 7회 마스터 선별대회 (에어로빅 발표회)
매: 11월 3일 (월) 늦은 5시 30분
곳: 대강당
주최: 한국외대 헬스케어로빅회
- ‘외대인과 함께 하는 거점 유통과 공인’
매: 11월 7일 (금) 늦은 1시부터 3시까지
곳: 붉은 광장 <신대백>
- 중간고사 치르실 대원들 문선 · 후배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총동문회 및 카니발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매: 11월 7일 (금) 늦은 5시
곳: 종로전대 4층

특히 17기 동문 후배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재외대원동문회)

■ 축하합니다

· 정하다. 김용준 드디어 해냈다. LG 21세기 선반대 우수상 수상!
응근(산방 92형) 축하합니다. 선배님이 자랑스러워요.
(해의문화회 일동)

왕 산 골

■ 알립니다

· 제9회 수화발표제

매: 11월 6일 (목) 늦은 6시
곳: 자연대 대강당
수화노래와 공트, 수화 동영을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순산 시민회)

■ 축하합니다.

· 자연대학교 미생물학과 96 김국연 학우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소중한 사람들 일동)

■ 수고하셨습니다

· 언어학과 집행부 친구들 1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92 서명원,전덕진 <국토순례반>

‘비둘기 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0-4112, 4590

지방학생 외면하는 기숙사 대학설치 기준령 강력히 적용해야

평등
있는
기숙사

우리학교는 지난 29일(수)부터 31일(금)까지 3일동안 서울배움터를 중심으로 대학종합평가위원회(대중평) 심사를 받았다.

이번 대중평 심사에는 여러가지 평가 항목이 있으나 시설관련 항목 중 기숙사에 관한 문항이 있다. 그러나 평가항목이 '기숙사가 몇 %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가'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제대로된 평가를 하기에는 미흡한게 사실이다.

우리학교는 서울배움터의 경우 29.5%, 용인배움터는 19.1%가 지방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용인배움터의 기숙사는 지방학생들을 약 21%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고 서울배움터는 기숙사 시설이 전혀 없다.

이에 본보에서는 700호 발행을 맞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약 150명의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서울배움터에서는 대학당국과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불편점, 개선해야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대학의 기숙사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저렴한 숙식을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 학생들이 24시간 교내에 거주함으로써 학업과 생활을 연계시켜 편의를 도모하는 생활관인 동시에 지도교수와 학생들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인격과 학업을 연마하는 교육환경이기도 하다.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하면 기숙사는 대학시설 중 우선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총학생정원의 15% 이상 수용능력을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별로 교육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학교 '서울배움터'의 경우 지방학생이 전체 학생의 약

30%나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기숙사가 없으며 지방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행정조치 또한 미비한 상태다.

대중평을 준비하고 있는 기획조정처 심사분석 주임 김영은씨는 기숙사에 대해 "우리학교 학생 중 지방학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서울배움터에 기숙사가 없긴 하지만 용인배움터 기숙사만 가지고도 서울·용인학생의 약 21%를 수용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해 학생들의 편의보다 눈에 보이는 자료에만 급급하는 대학 당국 행정의 일면을 드러냈다.

현재 서울배움터를 다니고 있는 지방학생들은 대부분이 자취나 하숙을 통해 생활을 하고 있으며 계속 오르는 물가로 인해 생활비 문제로 허덕이고 있다.

우리학교 서울배움터에 다니고 있는 지방고교 출신 학생 강혜정(중앙·중국어 1)은 "대학당국에서 기숙사를 지어 지방학생들의 어려움을 풀어주었으면 좋겠다"며 "중앙대 안성배움터 기숙사처럼 2인 1실에 시설도 좋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101개 대학 중 기숙사가 없는 대학은 무려 18개 대학으로 17.8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설치기준령에 제시한 학생정원의 15%에 미달하는 학교도 58개 대학에 달한다.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학과 학생정원 대비 보유율이 15% 미만인 대학을 합치면 전체대학 중 75.25%가량으로 이들 대학은 대학설치기준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기숙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용인배움터 학생들에

게 실시한 설문조사 항목 중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식사의 질이 나쁘다'라는 의견이 38%나 돼 아랑과 식당에 대한 그들의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여학생들의 경우 서울에 다녀오면 기숙사 규칙에 나온 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며 기숙사의 규칙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학생도 적지 않았다.

'현시기 기숙사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편의한 전자제품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여 기숙사 시설 부실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희원(서울·독일어 2)군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거의 없고 한 방에 들어가는 학생 수가 많아 너무 난잡하고 시설도 나빠졌다"며 "그나마 온수 공급이라도 지극적으로 해결되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또한 '기숙사를 신축해야 한다', '식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도 29%를 차지하였으며 여러문항에 동시에 표기한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기숙사에 대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용인배움터의 건물간 거리가 상당히 먼 것도 학생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질문인 '기숙사와 건물간의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셔틀버스 운영을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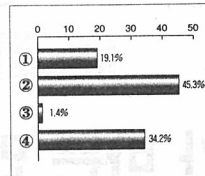
이렇게 학생들의 많은 불만을 사고 있는 기숙사의 개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대안으로 대학설치기준령을 현실적 조건에 맞게 개정, 강화해야 하며, 부족하나마 우선 대학설치기준령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현재 대학설치기준령은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형식일 뿐이다. 도서관과 각종 교사, 실험·실습 설비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별 효력이 없어 권장사항이나 다름없다. 갖가지 예외조항과 특례조항으로 대학설치기준령은 상투부성이다. 기숙사에 대한 규정하단 보더라도 이 규정을 지닌 대학은 불과 50%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딱히 안 지켰다고 볼 수도 없다. 교육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령해설은 학교당국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뿐이다. 교육부가 대학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그나마 부실한 대학설치기준령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만이 현재 대학의 낙후된 시설 및 설비 여건을 신장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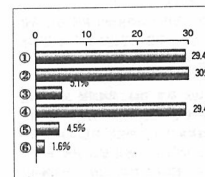
또한 실제 이용자이며 기숙사의 개선점을 정확히 알고있는 이는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이러한 정부의 정책만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닌 스스로 느끼는 기숙사의 개선점에 대해 주체적으로 나서 담당하게 요구해야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서윤경 기자



▶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만스러운 점은?

- ① 공부하기 불편하다
- ② 식사의 질이 안좋다
- ③ 다른 학생들과 사이가 안좋다
- ④ 기숙사 규칙 때문에
- 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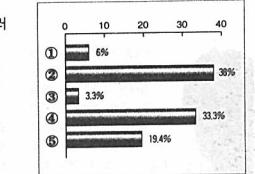


▶ 기숙사와 공부하는 건물 간의 거리가 멀다. 이에 대한 대안은?

- ① 셔틀버스 운행
- ② 자전거 제공
- ③ 자동차 함께 타기
- ④ 좌석버스가 기숙사에 들어가야 한다
- 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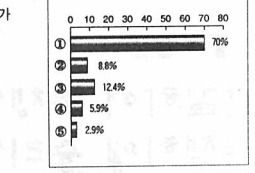
▶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만족하는 점이 있다면?

- ① 없다
- ② 공부하기 편하다
- ③ 식사의 질이 좋다
- ④ 기타



▶ 현재 기숙사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기숙사를 하나 더 늘려야 한다
- ② 여러 편리한 전자제품을 늘려야 한다
- ③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야 한다
- ④ 식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
- ⑤ 기숙사 행사를 자주 마련해 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해야 한다
- ⑥ 기타



① 숙소생 김동욱(동구·항가리 2)군을 만나 학생 복지시설 추구 우선해야

기숙사 시설은 어떻게 꾸며져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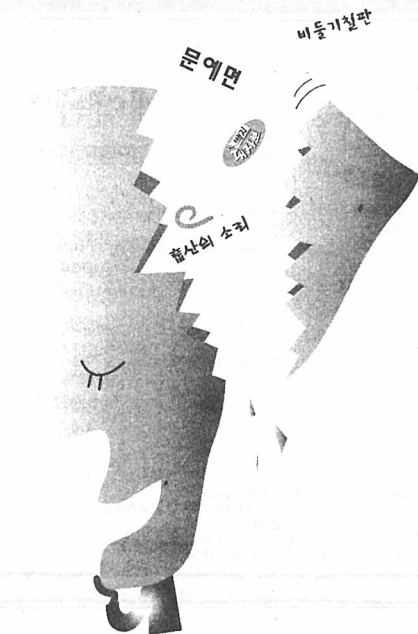
4인 1실이고 책상, 옷장, 침대가 있다. 그리고 각 층 휴게실에 TV가 있고 컴퓨터가 4대 있다. 그 이외에 열람실과 샤워실이 있는 정도다.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일단 4인 1실이라 사람이 한 방에 너무 많아 산만하며 도란방식 시설이 제대로 없어 귀중품을 놔두기가 무서울 정도이다. 또한 컴퓨터가 4대에 있어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학생 수가 400명인 남는 기숙사에 겨우 4대로 무엇을 하겠는가. 이외에도 온수가 아침 저녁으로 각 각 2시간씩밖에 안나와 조금만 늦게 일어나도 사용할 수 없고 일찍 일어나도 사람이 많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서울대의 경우 2인 1실에 발신이 되는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다. 우리학교도 기숙사를 하나 더 늘려 2인 1실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 여러 복지시설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대우당국이 나서서 선진국형 행정이라고 하는 '학생들의 복지시설을 우선 추구' 하는 형태로 변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먹지 좀 부릅시다!

나중에 가서 잘못된 먹지 주장이었다고 해도
자신이 믿고 있던 그 순간만은
자신의 생각이 진리라는 확신을 가질 줄 아는 그런 이...

외대학보에
당신의 먹지를 새겨 주십시오.
먹지 좀 부려주세요.

외대인의 역사를 담아낼 그릇들이 외대학보에는 꽤나 많습니다.

출판의 소리

학내·학외 사안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들읍시다

문예면

시·소설·수필·
만화·광고 등

비둘기
대자보

일정한 주제에 대한
짧으면서 재치있는 단편

비둘기철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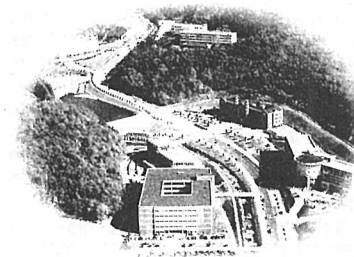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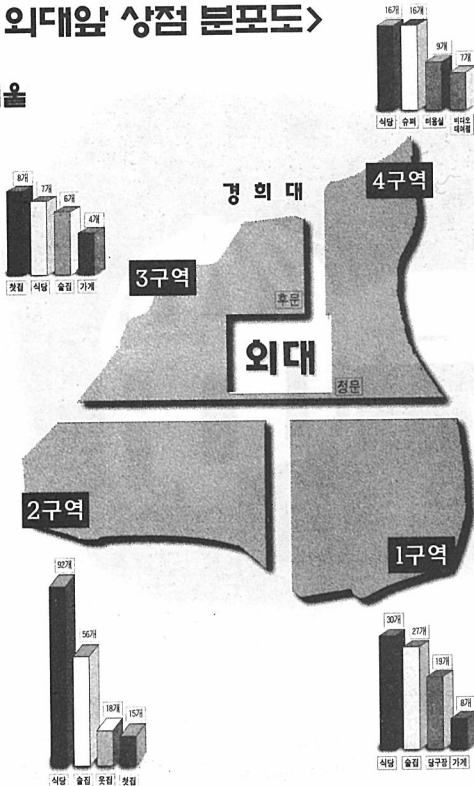
축하·일별·찾음·모집등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웃은 늘고 책은 줄어드는 외대춘

용인 앞 모든 부분 열악, 서울의 1/6 수준

<외대 앞 상점 분포도>

서울



“그 학교 학생을 알면 캠퍼스가 아니라 학교 앞 상점을 돌아봐라.”

그날 생긴 말이 아남을 이반 '외대 주변 상점 분포'를 조사하면서 확인했다. '외대'는 밥만 먹고 사는가? 라는 누군가의 자조적인 한 마디를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외대 앞 상점을 배움터로 기준으로 그 분포에 따라 총 5개 구역으로 분류해서 실시했다(그래프 참고). 전체 상점분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배움터와 용인배움터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고, 특히 서울배움터는 구역에 따른 상점의 특성이 구별되기 때문에 편의상 4개 구역으로 분류한 것이다.

우선 서울, 용인 구분 없이 '식당, 술집, 당구장'은 우리학교 앞 상점의 기본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밝혀졌다. 특히 '당구장'은 양 배움터를 통틀어 33개로 비디오파, 노래방과 함께 우리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요 오락수단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점'은 서울이 5개(2개는 한림방학이다)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용인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로 나와 놀라움을 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용인은 서울과 비교했을 때 상점의 수에서도 지금껏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의 총 상점수가 97개인데 비해 서울은 그 배가 넘는 624개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당연한 결과일뿐이지 모르지만 모험에는 식당과 노래방, 비디오방을 제외하고는 이문종과 비교했을 때 상점의 수나 종류면에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한편 이문종은 식당의 새로운 경향으로 '레스토랑'의 증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3·4개밖에 안 됐던 레스토랑이 현재 15개로 늘어난 것이다. 밥과 차를 함께 해결하면서 예기도 나올 수 있는 식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이밖에도 특이할 만 한 점은 학교 앞 웃가게가 42개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웃가게도 대부분이 여성의 류관매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대, 홍대 앞의 서점은 줄어들고 웃가게가 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웃가게와 함께 커피숍의 증가는 대부분의 대학가 상점의 변화모습으로 우리학교 역시 예외가 아님을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민화방은 증가폭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점점 대형화되면서 약속시간을 기다릴 때나 공강시간 때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에도 찾아가는 곳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KFC' '맥스킨라빈스 31' '코니아일랜드 아이스크림' 'DUNKIN DONUTS' '오크레시 IC' 등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상점들이 7군데에 이르는 것도 새로운 경향이라 하겠다. 3년전만 해도 2·3개에 불과하던 외국상점들의 증가는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갈 일은 아닌 듯 하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와 이문종 전체 식당과 호프집의 63%가 2구역에 밀집해 있는 기현상이 조사결과와 확인되고, 전체상점의 23%가 식당이 차지해 여전히 우리학교는 '밥집'이 가장 집약되는 대학임을 입증했다.

김민석 기자

대학문화 형성할 '공간' 필요

생산적 공간이용 위해 학생 적극 개입 필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외대앞에는 기와집이 대부분 이었고 내문사인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라고 학교 앞 문방구 주인 김상호(55세)는 말한다. 불과 5·6년만에 외대앞에서 집집마다 사라졌고 내문사인 불빛이 외대앞을 비추고 있다. 상점의 분포도 볼때 이제 외대앞도 형식적으로는 어느 대학촌과 다를 바가 없다.

만저 대부분의 상점들이 외형적인 면에서는 대형화, 내용·서비스 면에서는 고급화되고 있다. 이는 예전과는 달리 소비자들이 '목적'에 더해 '편리'와 '세련됨'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상점들이 이를 수용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본보 설문조사에서 자주 가는 상점의 이유를 물어본 결과 대부분이 서비스와 내부 인테리어라고 답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고급화, 대형화 경향으로 인해 각종 편의점과 편의점은 늘어났고, 반면에 외대앞의 소규모 문방구와 구멍가게는 대부분 사라졌다.

그리고 술집, 찻집, 비디오·노래방, 옷집 등 급격히 증가한 반면 서점, 문구점 등은 감소한 것도 특징이다. 이는 학교 앞 문화가 치러지게 소비지향적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외대앞의 웃가게의 경우 40개가 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웃가게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는 외대 앞 웃가게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영향도 있지만 폐선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소위 '신세대' 경향의 반영이기도 한 것이다.

한편 설문조사에서 통해 학생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점(35%)인 것으로 드러났고 사, 회화학점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는 학생도 상당

수 존재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외대앞의 3개의 서점이 재확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요구에 비해 서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술집과 카페 등의 소비오락문화는 확산된 반면 생각하는 대학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학교앞에서 '다산초당'이라는 전통차점을 운영해는 조재환(본교 88학번)씨는 "대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대학만의 색깔을 지닌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문화는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공간'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또한 '대학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재환씨는 "전통차집에서 예술영화나 독립영화 상영, 공연 개최 등을 통해 대학생들의 문화공간을 마련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비디오감상실 등의 공간을 통해 사선심의로 인해 상점장소를 찾지 못한 독립영화나 인권영화 등을 감상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등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즉 학생들의 개입과 재가 공간과 만들고 그 공간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용인캠퍼스 모현의 경우는 이러한 대학문화화를 고민할 여유조차 없는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상점이 서점, 레스토랑, 웃가게에 학생들의 의견이 집중된 것과 달리 용인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모든 상점이 부족한 탓에 골고루 나타났다.

이는 대학문화의 문화에 대한 고민보다 먼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상점의 발생이 더 큰 무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서훈경 기자

5년만에 3배의 양적 발전

외대앞은 10년전과 비교해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변했을까.

먼저 90년 동대문구청 발간 통계연보를 보면 학교주변에는 식당과 술집, 찻집 등 음식점 관련 상점이 100여개가 조금 넘게 있었으나 95년에는 270여개의 음식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5·6년 사이에 양적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또한 찻집, 레스토랑 등의 음식점들도 많이 생겨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보였다.

흥미로운 사실 한가지는 90년까지만 해도 학교 앞엔 술집, 즉 전술업이 학교 앞엔 오름책 먹자 골목 보다 더 활성화된 곳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학생들이 전술업과 학교 사이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앞 골목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90년대 초반 '전술업'이 줄어든 주책이었던 학교 앞 오름책 지역에 고함식당이 주책을 개조, 식당을 시작하면서 '전술업'이 사라졌고, 식당이 많아지면서 현재 먹자골목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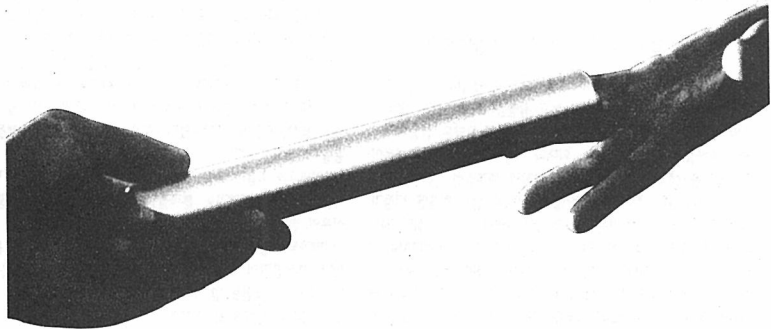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어느 대학과 마찬가지로 외대에도 외국상점이 들어섰다는 점이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고려대와 더불어 유일하게 외국상점이 없었던 점을 생각하면 고학한 선배들에게는 일종의 충격으로 다가올 지도 모르겠다.

한편 대부분의 상점이 증가한 반면에 사라진 상점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과학서점인 '독립출판'이 94년 없어졌고 서점도 서너개 정도 없어졌다. 그리고 전통차집도 전부 없어졌다. 2달전에 '다산초당'이라는 곳이 생겨 유일하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임승희 기자

학교 앞 상점 분포도 판 외대

다음 주자는 누구입니까?



민족자주론
외대학보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듯이

먼저 거처간 자의 뒤를 따라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날 때 역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외대학술상·문학상을 거처간 사람들의 뒤에

이제 여러분이 도전자가 되어 보십시오.

외대학술상·문학상의 역사는 또 한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집부본

문학상 - 시·소설·수필·희곡·비평

학술상 -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

마감일 : 12월 12일(금)

문 의 : 서울 961-4182·4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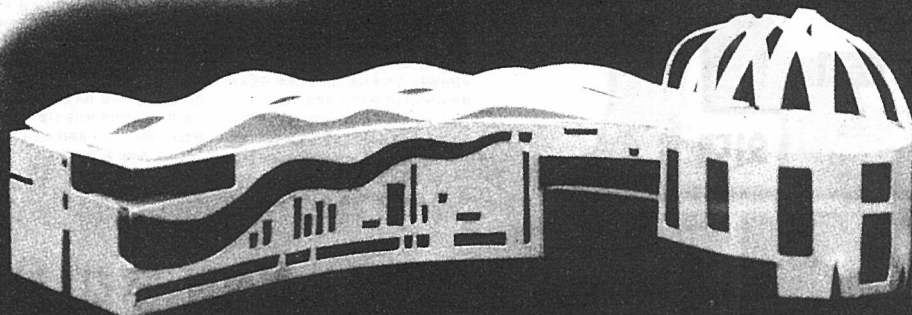
용인 0335)30-4112·4580

서울배움터 학생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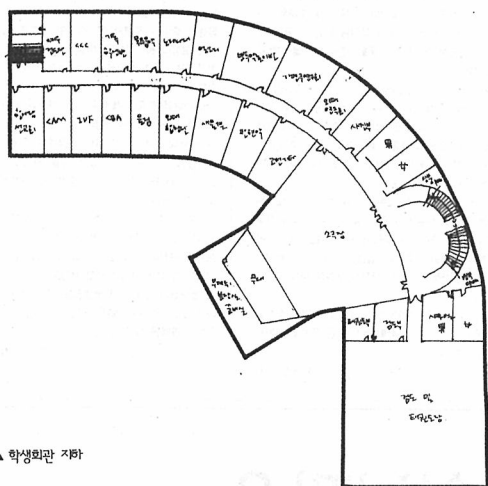
500평의 대지 위에 들어선 5층짜리 조그만 건물
을 하루 약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용한다.
강의시간 외에 공간시간과 수업이 끝난 후 가장
많은 학생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곳. 서울배움터
학생회관은 이처럼 학생들에게 어떤 건물보다
중요하고 의미있는 곳으로 다가온다. 당연히 그
에따른 불만 또한 다양하다. 방음향과 이중창의
부재로 인한 소음·난방문제, 공간부족으로 인한
과방·동아리방의 비좁음, 겨울이면 제기되는 난
방장치에 대한 문제 등 학생회관 설립시부터 제
기된 문제가 몇 십년째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학생회관에 있어야 할 여러 동아리나 과방들이
공간부족으로 인해 노천극장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학교만의 서글픈 현실이다.

한편 학생회관에 대한 보수·신축 논의는 몇년
전부터 총학생회가 출범할 때마다 '풀어야하지
만 결국 풀지 못하는' 문제로 인식돼 왔다. 그러
다가 결국 31대 총학생회가 공약사항으로 '학생
회관 신축'을 내기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만큼
서울배움터 학생들에게는 절실한 문제였던 것이
다. 그러나 31대 총학생회가 끝나고 32대 출범
을 위해 학생회 선거를 기다리고 있는 오늘날까
지 학생회관 신축에 대한 움직임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역시 쉽지 않은 일인듯 하다.
그래서 본보가 나서기로 했다. 현재 학생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동아리, 과학생회, 학생대표기구,
학교기구 등의 조사를 바탕으로 학생회관을 이
용하는 학생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공간
을 조사해 학생회관을 설계해왔다. 상상속에만
존재하는 건물이 아니라 예산만 확보된다면 현
실적으로 건설 가능하고 실용적 측면에서도 뛰
어난 건물인 것이다. '신 학생회관'은 현 학생회
관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설계했다.

1. 학생회관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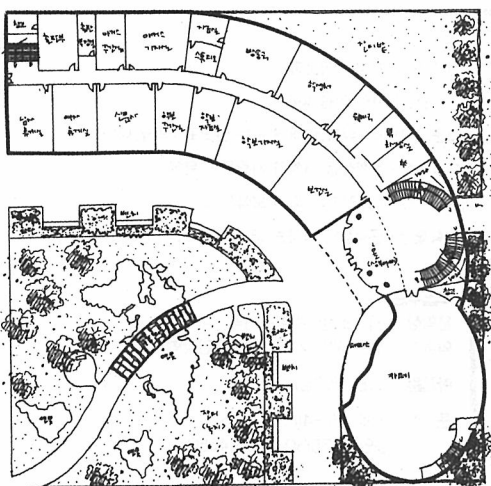


2. 학생회관 평면도



▲ 학생회관 지하

▼ 학생회관 1층 및 광장



3. 학생회관 설계일지

1. 학생회관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회관이
얼마나 외대와 어울리느냐이다.

—종량—

3. 그 후 행위와 활동의 성격과 내용이 유사한 것끼리
나누고 그 활동들의 건축적 요구를 분석하였으며 아
울러 학생들의 요구 사항도 반영하도록 건축 계획 분
석을 하였다.

① 첫째로 동아리에 관한 분석이다.

- 공연분과는 약간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며 소음이 많이 나
므로 소음이 적은 다른 동아리들과 분리시킨다.
- 물의 사용이 빈번한 활동의 동아리는 물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실을 배치한다.
- 종교분과는 소음이 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같은 종
교분과라도 소음의 유무로 격리시키도록 한다.
- 체육분과의 실은 각 동아리실에서 쉬거나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서 쓰이도록 한다. 체육분과의 동아리 활동은 요구되는
체육 시설로 이동하도록 한다.

② 두째로 기타시설 또는 학생회관 시설에 관한 분석이다.

- 언론관련 기관은 서로 접근시킨다.
- 학생회, 수재국, 보건실의 시설은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
- 각 위원회, 연합들은 서로 근접시킨다.
- ③ 셋째로 각 학과실에 대한 분석이다.
- 각 과실은 동아리실들과 분리시키고 각 시설이나 기관에 접근
이 용이하도록 한다.
- 각 과실은 단과대학 별로 모아두도록 한다.
- 총학생회는 학과실들과 근접시킨다.

4. 다음으로 실제 디자인 단계로 접어들어보자.

학생회관은 현재 '동향'이다. 품물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는
광장쪽으로 건물을 약간 구부러 놓고 광장을 조금 줄이면 실의 개
수와 면적이 늘어날 것이다. 덩어리(MASS)의 모양은 건물이라기
보다 조형물에 가까워야 한다. 외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조형물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다가 외대 교육 방침에 세계발전, 국제적 인력
양성, 진리, 평화, 창조라는 단어를 모티브로 삼아 처음엔 비둘기
가 빠른 속도로 비상하려는 모습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실의 배치
와 면적의 문제를 충족시키지 못해 지금과 같은 덩어리(MASS)의
형상을 갖추게 되었다. 현 덩어리(MASS)는 "진리"라는 단어에서
생각해 낸 책을 모티브로 한 곡선모양의 책과 그 옆에 타원의 평
면위에 돔의 틀(FRAME)로 지붕을 덮어 변형된 지구의 모습을 한
디자인으로 형상을 갖추게 되었다.

5.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덩어리(MASS)에 실을 배치
시킨다.

먼저 지하층을 살펴보자.

지하층은 소음을 많이 흡수하므로 소음이 많이 나는 동아리들을
배치시키고 빛과 멀어야 하는 실들과 소극장, 검도 및 태권도장을
배치시켰다. 공연분과들은 소음이 많으므로 모두 지하층으로 내려
는데 공연분과와 소극장은 가까워야 하므로 소극장 근처에 배치
하였다. 소극장은 원래 바닥이 경사져서 좌석을 없애야 마땅하나
품물패나 기타 다른 동아리의 편리한 연습을 위하여 바닥을 평평
하게 하고 총계를 4.5m 이상으로 한다. 종교분과에서도 특히 기독교
교와 관련된 동아리들은 찬양이나 예배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
므로 지하층에 배치시켰다. 검도 및 태권도장이 교내에 없으므로
새로 만들어 보았으며 도장 가까이 태권도부와 검도부 동아리
실을 두어 기구관리, 휴식의 장소로 사용하며, 또한 샤워실을 가까
이 두되 다른 동아리 학생들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장 외부에
서 출입하도록 한다.

1층은 학생들의 접근이 가장 용이하므로 중요한 시설들과 기관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건실이 정문에서 가장 가깝게 배치
되었으며 또한 언론기관들 역시 학생들과의 접촉이 잦으므로 접
근이 용이한 일층에 두었다. 학생들이 학생회관에 대해 가장 비바
던 점이 바로 사이버 카페이다. 이 사이버 카페에서는 컴퓨터 통
신, 복사, 휴식공간, 음식 취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가장 많이 이용
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문과 가
까우며 뒷문에서도 직접 접근할 수 있고 테라스를 통해서도 들어
올 수 있는 공간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 여학생 휴게실은 정면
인 곳에 배치하였는데, 이 곳은 소음이 적은 곳이며 접근이 용이
하여 휴식 위주의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대중평으로 인
해 지극히 축소돼버린 대자보 공간을 '1층 홀'이 담당하게 된다.

광장엔 연못을 두도록 한다. 연못은 세계지도 모양이며 연못위로
길이 지나므로 구름다리를 두도록 한다. 또한 길 중간중간에 알코
브를 두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였으며, 주 도로 역
시 알코브를 형성해 벤치를 두었다.

2층은 홀을 중심으로 한 건물쪽에는 각 위원회 및 연합, 그리고
덜 중요한 교내시설, 소음이 적은 종교분과의 동아리들을 배치하
였으며 카페 위의 2,3,4층엔 각과 학과실을 모아두었다.

3층엔 체육분과들을 모았는데 활동후 땀을 식힐 수 있는 곳, 모
임을 가질 수 있는 곳이며 자주 씻어야 하므로 샤워실과 화장실에
근접하도록 배치시켰으며 나머지 부분은 소음이 많지 않은 동아
리인 봉사분과들을 모아두었다. 물론 샤워실은 모든 학생들이 기
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4층은 소음이 거의 나지 않으며 조용한 분위기를 원
하는 학습분과와 예능 분과들을 두었는데 예능 분과중 물의
사용이 빈번한 동아리들은 화장실 근처로 배치시켰다.

이밖에도 4층 광장에서 직접 올라갈 수 있는 '옥상공원'을 배치
했다. 휴식공간이 부족한 외대의 또다른 명소가 될 수 있을 것 같
다. 미네르바, 3권을 앞 가로수 등으로 인해 외대에서 가장 경관이
좋은 장소로 꼽히게 될 것이다.

설계자: 이소라
(강남대 건축공학 3)